

COOLIDGE CORNER INVESTMENT IMPACT REPORT 2026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2026 임팩트 리포트

CCVC 2026 IMPACT REPORT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2026 임팩트 리포트

ABOUT THIS REPORT

REPORT CONCEPT

우린 지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기술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며,
버려지는 자원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시도, 그 도전과 함께 합니다.

2026년 임팩트 리포트는 이러한 기업들의 도전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의 단서를 []에 담아 기록합니다.

보고서 개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CCVC 소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시작으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임팩트 펀드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보고 내용

Impact Investment에서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의 미션과 투자 철학, 임팩트 투자 전략 및 관리 운영 구조 등을 담았으며, Innovator’s Impact 에서는 포트폴리오사 14곳의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 성과와 활동을 담았습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투자사 관점에서 바라본 각 포트폴리오사의 미래 성장 모멘텀과 임팩트 포인트를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 각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현장의 스토리를 연결하여 기술했습니다. 단, 본 리포트에 공시된 데이터는 해당 기업이 명시한 데이터로 별도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작성 방법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포트폴리오사 대표 대면 인터뷰 및 데이터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업의 임팩트를 검토했으며, 임팩트 KPI 설정 및 측정 과정에는 임팩트 전문 자문사 트리플라잇㈜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Contents

Impact Investment

CEO Letter	09
Mission & Philosophy	10
Impact Approach	11
Impact Strategy & Management	13

Innovator's Impact

Highlights	22
Local	[]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확장하다
	글로우서울, [로컬 브랜딩]으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다 28
	미스터멘션, [로컬 스테이]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다 32
	어반플레이, [로컬 콘텐츠]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다 36
People	[]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넥셀, [바이오 플랫폼]으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42
	엔티, [식재료 공정 혁신]으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46
	엣지케어, [웨어러블 테크]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50
Planet	[]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나노캡,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56
	마들렌메모리, [순환 소비]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60
	씨엔티솔루션, [첨단 소재 혁신]으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64
	키나바, [폐기물 혁신]으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68
Break-through	[]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이그린글로벌, [신기술 이전]으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74
	인진, [에너지 상용화]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78
	젠트로피, [배터리 표준화]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82
	클라우드웍스, [SI 아카데미]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86



IMPACT INVESTMENT

CEO Letter

Mission & Philosophy

Impact Approach

Impact Strategy & Management



CEO LETTER

2015년 CCVC 소셜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며 임팩트 생태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의 도전은 '선한 의지가 수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26년 현재, 우리는 더 이상 임팩트의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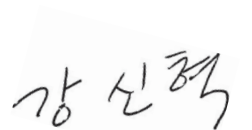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년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누볐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개의 임팩트 기업에 286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 속에 환경 및 소셜 미션이 깊이 내재화된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린 결과입니다.

그 중 14개 기업이 이번 레포트에 수록되었으며 로컬 활성화 플랫폼, 바이오 혁신 테크, 탄소 중립 솔루션, 순환경제 인프라 등 각자의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과 환경 및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하며 '성장할수록 임팩트가 커지는' 구조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가 경제의 주축으로 들어오는 이 시대에 자본의 흐름은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쿨리지코너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트리플라잇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이제는 투자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크기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독보적인 '임팩트 렌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다음 세대의 세상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자본을 투입하고 어떤 창업가의 손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도 환경, 소셜 미션을 비즈니스의 심장에 품은 창업가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임팩트 펀드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견인하고 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주시는 출자자 여러분과 창업가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강신혁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MISSION & PHILOSOPHY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6년간 초기 스타트업과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투자해 온 벤처투자회사입니다. 2010년부터 투자와 액셀러레이팅을 결합한 투자 모델을 선도하며, 창업 초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네트워크 연결, 사업화 지원, 후속 성장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Build Trust With Founders,
and Create Innovative Networks

창업가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투자자와 창업자의 1:1 관계를 넘어, 창업가를 중심으로 투자자-전문가-지원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력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하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와 사업적 성과가 함께 확장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투자 철학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근본이다'라는 투자 철학 아래, 창업가의 임팩트 창출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갑니다. 액셀러레이터형 VC로서 회사의 성장에 적극 기여하며, 회수(Exit) 이후에도 임팩트를 창출하는 동반자로 창업가와 함께 합니다.

창업가를 바라보는 5가지 기준

- | | | |
|---|----------|---|
| 1 | 신뢰할 수 있는 | 신뢰는 CCVC가 창업가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
| 2 | 유연한 | 비즈니스 모델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가를 선호합니다. |
| 3 | 투명한 | 서로를 믿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합니다. |
| 4 | 균형있는 | 창업가는 감정, 친분 등을 넘어서 구성원을 대하는 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조직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5 | 상생하는 |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생의 가치를 지닌 창업가를 선호합니다. |

IMPACT APPROACH

임팩트 펀드 운용 현황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총 1,958.3억원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팩트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935.4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47.77%입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2012년부터 58곳(청산펀드 포함)의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투자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재무적 수익률과 소셜 임팩트를 동시에 달성하며 'CCVC 소셜벤처투자조합'을 성공적으로 조기 청산해, 임팩트 투자 분야의 전문성과 운용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운용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 내에 지속 가능한 로컬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등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로컬 임팩트 투자사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총 운용자산(AUM)

누적 투자기업수¹

1,958.3억 원

2026년 4월 말 기준

146개

2026년 4월 말 기준

임팩트펀드² 운용자산(AUM)

임팩트펀드 운용 개수

임팩트펀드 운용자산 비율

935.4억 원

2026년 4월 말 기준

6개

2026년 4월 말 기준

47.77%

¹ 누적 투자기업수는 청산펀드를 포함하며, 콘텐츠 프로젝트는 제외

² 임팩트 펀드, 도시재생 펀드, 그리고 임팩트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펀드를 포함

PEOPLE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4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6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3



PLANET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1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3



PROSPERITY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6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4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3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4



IMPACT STRATEGY & MANAGEMENT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부터 초기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2012년 인큐베이팅 펀드를 시작으로 사회적기업펀드, 도시재생펀드, 소셜임팩트 펀드 등을 결성·운용하며, 관련 산업과 투자 대상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시기부터 소셜벤처에 지분 (equity) 투자 방식으로 자본을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던 임팩트 산업의 흐름을 국내 시장에 접목하기 위해 정책 제언, 간담회, 현장 논의 등 생태계 조성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이후에도 피투자기업의 매출 성장, 기업가치 제고, 경영 역량 강화, 임팩트 측정·관리 역량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 지표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이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순환, 농식품,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증 경험과 시장 적합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투자·육성하며 스케일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임팩트 투자를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불편함이 없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의 임팩트 전략 프레임워크 (Theory of Change)



CCVC ESG임팩트펀드 IV's Theory of Change

ESG임팩트펀드 4호는 2023년 4월에 결성된 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 펀드입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총 16개 임팩트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에너지·자원 순환, 지속가능한 식량·농업, 건강한 사회 및 포용성 등을 핵심 테마로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원 고갈 및 환경 오염 해소 에너지·순환경제

고효율 에너지 기술, 자원 재순환, 친환경 농업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폐자원 재활용 확대, 화학비료 사용 부담 완화 등의 임팩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 헬스케어·바이오

동물실험 대체 바이오 기술과 치매 조기진단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제고, 약물평가의 예측성 향상, 동물실험 의존도 완화, 고령화에 따른 질병 부담 완화 등의 임팩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용성 증진 및 격차 해소 서비스·일자리

법률 플랫폼, 위조품 판별 ICT 서비스,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신뢰 기반 거래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임팩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사법 접근성 격차,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에너지·자원, 건강, 산업경쟁력,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 세대의 핵심 과제에 대응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술적 해자를 통해 유익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선명한 임팩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SG 임팩트 IV 대표펀드매니저 문성현 상무

Social Problem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산업 전력 등 에너지 사용 증가

자원 낭비, 폐기물 및 환경 오염 증가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및 소규모 농가 소득 불안정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속관리의 어려움, 신약개발 과정의 높은 비용 및 안정성 문제

법률서비스 접근성 부족, 정보 비대칭 및 격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We invested in Solutions

- 고효율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 전력 효율화 기술, 방열 및 고기능성 소재 개발
- 중고 거래, 폐자원 재활용 등 순환 경제 솔루션



- 해조류 기반의 천연 유기농 비료 제품 개발
- 국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규모 농가 계약재배



- 인간 세포 기반의 첨단 바이오 기술 개발
- 웨어러블 및 비접촉식 생체 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AI기술 통한 정보 격차 해소
- 디지털 플랫폼과 투명한 검증 기술



Lead to investee's Growth

Financial Growth

기술 개발

제품/서비스 판매 증가

매출 성장

피투자기업 전략/운영 지원 (Technical Assistance)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영업/마케팅 전략 수립, 법률/회계, TIPS 및 후속투자 유치, 임팩트 측정/관리 등 지원

Contribute to People and Planet

Impact Growth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폐기물 절감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태계 전환 촉진



웰빙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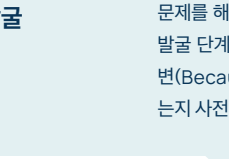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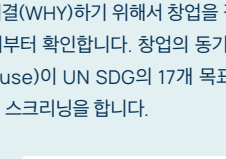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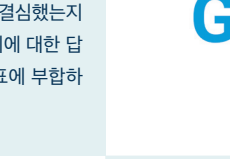


포용성 증진 및 격차 해소



임팩트 관리 전략 및 프로세스

콜리치코너인베스트먼트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임팩트 관리체계(IMM)를 딜소싱부터 회수(Exit) 단계까지 투자 전 주기에 걸쳐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포트폴리오사가 투자 종료 이후에도 사회·환경적 가치를 투영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임팩트 투자 전략 수립	재무적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환경적 문제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투자 대상 발굴	창업자의 창업 동기에 주목합니다. 특히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WHY)하기 위해서 창업을 결심했는지 발굴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창업의 동기에 대한 답변(Because)이 UN SDG의 17개 목표에 부합하는지 사전 스크리닝을 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	글로벌 표준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의 5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기업의 임팩트를 검토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팩트심 의위원회의 사전 평가를 거쳐 임팩트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무와 임팩트 관점을 통합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투자를 결정합니다.	
임팩트 성과 지표 설정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IRIS+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임팩트 지표(Impact KPI)를 도출하고, 포트폴리오사와 합의하여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	합의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인 검수를 병행합니다.	
회수	내부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통해 투자 종료 이후에도 기업의 임팩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 시 임팩트 판별 기준

CCVC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IMP의 5가지 차원을 활용합니다. IMP는 기업이나 투자 활동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What, Who, How Much, Contribution, Risk**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회·환경적 문제와 대상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창출되는 성과의 규모와 지속 기간 및 기존 방식 대비 솔루션의 효과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아가 임팩트 리스크까지 입체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투자사가 재무적 성과와 사회·환경적 가치를 자산 배분의 의사결정에 유기적으로 통합하도록 지원합니다. 쿨리치코너니베스트먼트는 이러한 국제적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초기 투자 적격성 평가 시점부터 잠재적 임팩트 리스크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관리 프레임워크를 보완했습니다.

IMP 기준	CCVC 임팩트 사전 판별 질문
□ WHAT	어떤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환경 문제의 정의 및 심각성 및 UN SDGs 부합성을 점검합니다.
○ WHO	어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사회·환경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상황 등을 포함한 맥락적 특성을 검토합니다.
≡ HOW MUCH	사회·환경적 성과는 얼마나 창출하는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대상 이해관계자의 규모, 변화의 크기, 성과의 지속 가능 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CONTRIBUTION	기존 방식보다 해당 솔루션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 기존 방식 대비 투자사의 솔루션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검토합니다.
△ RISK	성과가 창출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IMP에서 제시하는 10가지 임팩트 리스크 유형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확인하고 검토합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각 포트폴리오사의 사회·환경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핵심 임팩트 지표(KPI)를 도출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인 IRIS+ metric과 연계하여 사후 모니터링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IRIS+는 국제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가 투자자가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입니다. IRIS+ Metrics는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순환경제, 사회적 포용 등 다양한 임팩트 테마와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정밀하게 연계된 방대한 표준 지표 세트를 제공합니다.

회수(Exit) 절차 수행 시 진행되는 임팩트 관점의 지속가능성 체크 리스트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는 투자 회수(Exit) 시점에 포트폴리오 기업이 그 이후에도 사회·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임팩트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투자 이후 회수 과정에서 임팩트가 악화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리 도구로 활용됩니다. 점검 과정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포트폴리오 기업과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보완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임팩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설정한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팩트 거버넌스	정관, 의사결정 구조, 조직문화, 핵심 성과지표 등에 임팩트 관점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투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창업자 미션 진정성	창업 동기에 문제 해결 의지와 사회적 가치 추구 의지가 확고하게 내재되어 있고 기업 성장 과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투자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팩트 위상 진단	수익성 악화나 사업 전략 변화로 인해 기존에 추구하던 사회·환경적 미션이 악화되거나, 임팩트와 무관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위험(리스크) 대응 체계	잠재적 위험이 확인된 경우 경영진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수자 적격성	기업 인수 또는 경영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주체가 기업의 임팩트 미션과 철학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지 검토합니다.
☑ 사후관리 체계/시스템	투자 회수 이후에도 임팩트 성과와 미션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 정보 공개, 성과 관리,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트리플라잇은 본 임팩트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의 임팩트 투자 전략, 임팩트 관리체계 및 주요 임팩트 KPI에 대해 제3자 관점의 검토와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본 의견서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제공한 투자 현황 및 펀드 관련 자료, 임팩트 관리체계, KPI 정의 및 설명 자료, 그리고 리포트에 수록된 각 기업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검토는 감사(Audit)나 개별 성과 데이터에 대한 보증(Assurance)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투자사의 임팩트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제3자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및 자문 과정에서는 UN PRI, 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OPIM), Impact Management Project(IMP)의 주요 원칙 및 관점을 참고하였습니다.

트리플라잇의 주요 검토 및 자문 범위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의 임팩트 투자 전략 및 관리체계가 국제적 임팩트 관리 기준의 주요 방향성과 부합하는지 여부
	본 리포트에 수록된 기업의 주요 임팩트 KPI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사회·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에 적절한 지표인지 여부

우선 트리플라잇은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의 임팩트 투자 목적, 투자 테마,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환경 문제, 투자기업의 솔루션, 임팩트 창출 경로가 일관된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전략이 포트폴리오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기대되는 사회·환경적 변화를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투자 이전 단계의 임팩트 의도 설정부터 투자 검토 과정의 임팩트 평가, 투자 이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임팩트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투자 의사결정과 포트폴리오 관리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OPIM에서 강조하는 임팩트 목표의 명확성, 포트폴리오 단위의 임팩트 관리, 임팩트 측정 및 평가, 투자 회수 시 고려 사항, 성과 관리 체계 등의 주요 원칙과 관점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각 투자 테마별 사회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투자 기업의 제품·서비스가 해당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전략 체계를 검토하고 보완했습니다.

또한 트리플라잇은 본 임팩트 리포트에 수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임팩트 KPI의 적절성을 검토했습니다. KPI 검토 과정에서는 각 지표가 기업의 핵심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사회·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정량·정성적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와 데이터 확보 수준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한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IMP의 5 Dimensions of Impact를 참고하여, 각 KPI가 무엇을 변화시키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변화의 규모와 깊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핵심 내용으로 검토했습니다.

트리플라잇은 본 자문 및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재무적 성장과 임팩트 성과를 함께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면 국내외 임팩트 투자 시장에서 신뢰도 높은 운용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NNOVATOR'S IMPACT

Impact Highlights

- Local []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확장하다
 - People []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 Planet []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 Breakthrough []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 

HIGHLIGHTS

Financial Highlights

이번 리포트에 수록된 CCVC의 포트폴리오사는 총 14곳으로, 해당 기업들은 설립 이후 평균 4.8년이 된 시점에 CCVC를 만났습니다. 이후 CCVC는 6.7년간 이들 기업과 함께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왔습니다. 투자 이후 포트폴리오사 전체 매출액은 평균 3.7배 성장했으며, 기업가치는 2.1배 상승했습니다. 고용 인원 역시 2.5배 증가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우드웍스는 신규 상장(IPO) 절차를 거쳐,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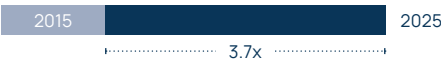
CCVC와 함께한 포트폴리오사 평균 업력



매출액

3.7배

투자 전 대비, 2025년 말 기준



기업가치

2.1배

투자 전 대비, 2025년 말 기준



고용 인원

2.5배

투자 전 대비, 2025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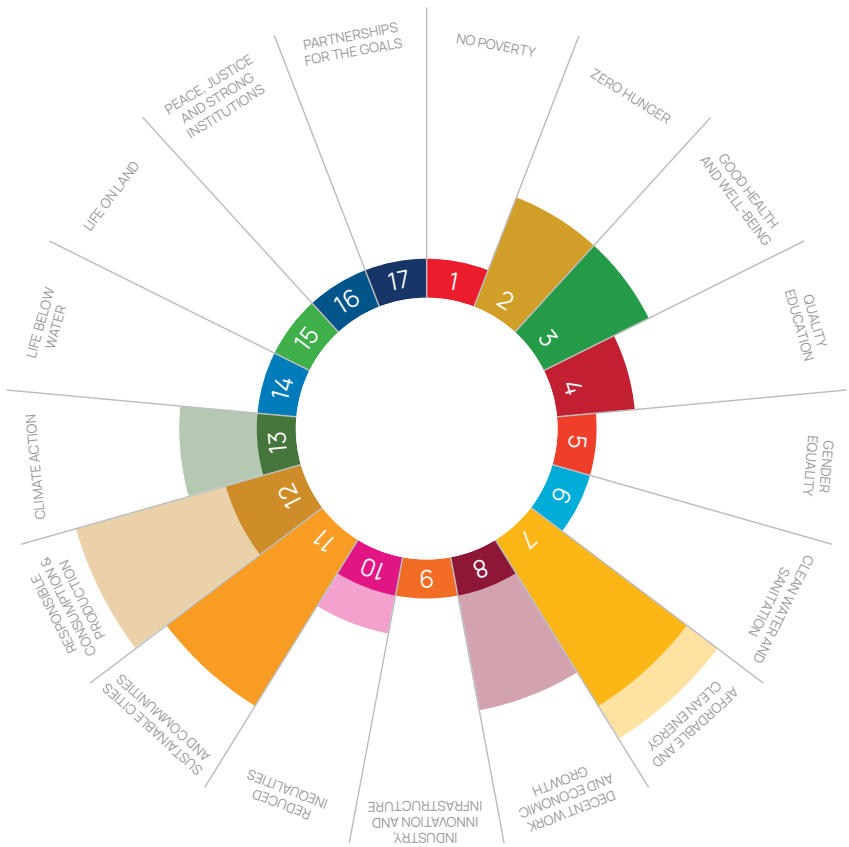
IPO

1곳

클라우드웍스, 2023년 8월 상장

Impact Highlights

CCVC는 포트폴리오사 14곳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SDG 7)',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11)',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SDG12)'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SDG8)',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SDG2)', '건강과 웰빙(SDG3)' 이슈에도 주목했습니다.



CCVC의 투자 테마로 살펴보면, 포트폴리오사 중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에너지' 테마에 집중되었으며, '지역', '농식품', '건강', '폐기물', '교육' 등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높이기 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농식품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순환경제
글로우서울 미스터멘션 어반플레이	엔티 이그린글로벌	넥셀 엠티케어	클라우드웍스	나노캡 씨엔티솔루션 인진 젠트로피	마들렌메모리 키나바

LOCAL



지역 활성화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다

GLOW SEOUL

미스터맨션

URBANPLAY

사업을 수행하는
인구감소·
관심지역

IRIS+ PI8168
Percent Revenue
Generated from
Social/Environmental
Products and Services

6개 프로젝트 수행

40개 지역 내
숙소 공급

8개 프로젝트 수행

P. 31 글로벌서울을 통해 3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매장 비중

25%

P. 35 방문객 평균 체류 기간

18일

P. 39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한 유휴 공간 면적

15,686㎡

PEOPLE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다

나눔투데이

EGG
e GREEN GLOBAL

취급 품종 수

IRIS+ PD1620
Crop Type

나물 70여 종

씨감자 186종

P. 49 전체 매출 중 희귀나물 비중

30%

P. 77 이그린글로벌의
씨감자가 공급된 국가 수

18곳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다

NEXEL

Edgecare

거래 기관 수

IRIS+ PI9652 Client
Organizations: Total

50개 기관

258개 기관

P. 45 심근세포 예측 정확성

87%

P. 53 합병증 발생 위험도 감소

약 20%



디지털 포용

AI 교육격차를 해소하다

crowdworks

교육 수료자 수

IRIS+ PI2998
Individuals Trained:
Total

협약기관 연계 수료자
166명

P. 89 AI 활용 스킬 교육 수료자

1752명

PLANET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다

NANOCAP

CNT
SOLUTION

KINAVA

에너지 소비
감소 비율

IRIS+ OI6697 Energy
Conserved

기존 커패시터 대비
약 20%

습식분산 대비 추정치
약 47% ↓³

건조방식 대비
약 70%

P. 59 기존 분쟁광물
부품 대체율

10%

P. 67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

0%

P. 71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 원인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감소율

99%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다



ENGINE
Good Earth, Better Life

ZENTROPY

RELAY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

IRIS+ PI5376
Greenhouse Gas
Reductions due to
Products Sold

누적 222,561tCO₂eq
2030년 목표

연 312.4kgCO₂eq

연 194tCO₂eq

P. 81 인도네시아 지역 내
누적 수혜 인구 수
2030년 목표

258,792명

P. 85 도로 이동
미세먼지 저감량

56.25톤

P. 63 마들렌메모리를 통한
중고 구매 고려 의지

90.5%



LOCAL

[]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확장하다

글로우서울, [로컬 브랜딩]으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다

미스터멘션, [로컬 스테이]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다

어반플레이, [로컬 콘텐츠]로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다



글로우서울은 로컬의 가치를 공간 콘텐츠와 브랜드로 재해석해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브랜딩 디자인 그룹입니다.

글로우서울은 입지 선정부터 콘텐츠 기획, 브랜드 개발, 설계·시공, 운영까지 공간 개발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지역 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담은 브랜딩으로 상권을 활성화 시킵니다. 2018년 법인 전환 이후 익선동·소제동·창신동 등 역사적·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침체 상권을 발굴해 자체 F&B 브랜드 20여 개를 포함한 300여 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지자체 협업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글로벌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SDG 11.3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하고, 모든 국가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8년 4월	최초 투자 시점	2022년 7월
대표자	유정수, 윤성혁	투자 펀드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I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II
홈페이지	https://glowseoul.co.kr/		
임직원 수	132명 (2025년 12월 기준)	투자 테마	지역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7길 23-13	산업분류	콘텐츠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글로우서울은 인하우스 통합 공간 솔루션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며 지역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공간 기획, 브랜드 개발,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간 프로젝트가 여러 외부 파트너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핵심 기능을 내재화해 기획 의도를 공간과 운영 단계까지 일관되게 구현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청수당’, ‘온천마을’, ‘도넛정수’ 등 대중 인지도가 높은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브랜드를 카페, 스파, 호텔 등 다양한 공간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인지도가 높은 자체 브랜드를 침체된 상권과 유휴 공간에 적용해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유동 인구를 유입시켰습니다. 공간을 단순히 채우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전환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Future Momentum

- 국내 침체 상권에서 독창적인 콘텐츠로 방문객과 매출을 이끌어내며 검증을 마친 자체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프랜차이즈(MF), 합작법인(JV), 직영 등 다각화된 형태를 통해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 확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 카페 중심의 F&B 영역을 넘어 리빙, 스파, 스테이, 브랜딩 컨설팅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가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공간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프랜차이즈화 대신 지역과 상권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선별적으로 배치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간을 선보이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글로우서울이 집중한 문제

사람은 떠나고 상권은 쇠퇴하지만, 지역의 잠재력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밀도 수준

1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2025)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밀도는 579.9명/㎢로, 전국 평균(3,873.1명/㎢)의 약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약화되고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 지역 간 상권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주점업 기준 사업체당 연평균 매출은 서울이 3.58억원인 반면, 경상북도는 1.76억원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수도권으로

경상북도 대비
서울의 음식점·주점업
평균 연매출

2배 ↑

국가데이터처 (2024)

소비와 방문객이 집중되면서 지방 상권의 성장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 기존의 공공 주도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방문 수요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굴하고 사람들이 찾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익선동의 오래된 한옥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노후된 한옥촌을 F&B 시설로 기획하여 오픈하기 시작했고, 상권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죠. 그게 글로벌서울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된 계기였고, 그 이후로 역사적 가치나 건축 양식이 있지만 저평가된 곳들을 계속 발굴해왔어요. 우리가 곧 상권이자 입지라는 생각으로요.

— 윤성혁 글로벌서울 대표

SOLUTION POINTS

글로벌서울의 차별 포인트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공간 콘텐츠로 전환해 모두가 찾는 ‘핫플레이스’로 만듭니다.

인하우스 통합 수행으로 속도와 품질 동시 확보

건축·인테리어·BX·조경·영상·F&B 개발·운영 전문가가 한 조직 안에서 협업하며, 공간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 비용과 오류를 줄이고, 공간의 콘셉트와 운영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

단일 브랜드에 의존하지 않고 20개 이상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 기획한 브랜드는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리브랜딩을 추진하며 유지해 온 브랜드 경쟁력은, 현재 다양한 진출 형태로 해외 시장에 안착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 자원의 콘텐츠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단순한 물리적 공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역사·지리·문화적 특성을 공간의 세계관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동의 철도관사촌, 익선동의 민가형 한옥, 창신동 등 전국 13건 이상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역의 잠재력을 새로운 상권과 방문 수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유 브랜드 수

25개

2025년 12월 기준



누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수행 지역 수

13개

2025년 12월 기준

IMPACT STORY

글로벌서울이 만든 변화

사람들이 찾지 않던 곳을,
시간을 내어 찾아가는 상권으로 바꿉니다.

목적 방문형 수요 창출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글로벌서울은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브랜드와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 지역을 직접 찾는 ‘목적 방문형’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은 해당 공간뿐 아니라 인근 상권까지 함께 이용하며 지역 소비를 확대하고,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내 프로젝트 수행 지역: 6곳
-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한 매출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원주 캠프롱, 익산 황등시장 등 지자체 협업 프로젝트 지속 확대

장기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글로벌서울은 공간 개발 이후에도 최소 3년 이상 직접 매장 운영을 지속하며 상권의 성장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개발 이익보다 장기적인 공간 운영과 브랜드 관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권 형성을 통한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3년 이상 장기 운영 자체 매장 비율: 25%
- 익선동: 평단가 2,000만원 → 8,900만원 (4.4배 상승, 2016→2019)

익선동 골목길은 그냥 낡은 한옥촌인 줄 알았는데, 청수당이나 온천집 같은 곳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간 하나가 골목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고, 올 때마다 새로운 활력이 느껴져요.

— 방문객 코멘트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프로젝트 수행 건수

6곳

2025년 12월 기준



도시재생 프로젝트 수행 지역 내
평당 지가 상승 배수 (익선동 기준)

4.4배

2016년 대비 2019년



장기 운영
자체 매장 비율

25%

2025년 12월 기준



미스터멘션은 유희 자원의 공간 효율화와 다양한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을 활성화 하는 중장기 숙박 전문 플랫폼입니다.

미스터멘션은 국내 최초 장기숙박 전문 숙소 예약 플랫폼으로, 지역의 유희 공간(빈집 등)을 숙박 자원으로 전환하고 지역 콘텐츠와 결합하여 방문객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5년 부산에 설립된 이후 장기숙박 플랫폼 운영, 워케이션(Worcation·일과 휴가를 결합한 근무 형태) 프로그램, 공유 숙박 실증특례 사업,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부산-제주-남해-영덕-울산 등)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DG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하고,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인간정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SDG 8.9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5년 10월	최초 투자 시점	2016년 12월
대표자	정성준	투자 펀드	CCVC 신디케이트리드펀드 CCVC 신디케이트리드펀드 II CCVC 부산 청년창업펀드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I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II
홈페이지	https://www.mrmention.co.kr		
임직원 수	13명 (2025년 12월 기준)	투자 테마	지역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산업 분류	ICT/플랫폼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미스터멘션은 중장기 숙박이라는 새로운 체류형 여행 생태계를 개척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미스터멘션은 '한달살기'와 같은 중장기 숙박 수요를 충족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체류형 여행객을 지역으로 유입시켜 일시적인 관광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합니다.
- 호스트는 단기 숙박 대비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공실률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투숙객에 대한 호스트의 높은 선호도는 플랫폼 내 숙소 등록 확대에 이어졌습니다.
- 공동 창업자 2인은 대학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함께하며 검증된 팀워크와 실행력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2019년대비 2021년 거래액을 8배 성장시키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Future Momentum

- 정부의 정책 변화로 영업신고증이 없는 국내 숙소의 상당수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운데, 미스터멘션은 공유숙박 실증특례 기업으로서 합법적인 숙소 공급권한을 선점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와 공식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 미스터멘션은 매출 성장과 더불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재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호스트 관리 공수가 적은 중장기 투숙 모델의 특성을 살려 소수 정예 조직 운영으로 고정비를 최소화했고, 외부 지원금 대신 순수익 기반의 안정적인 구조적 자생력을 확보했습니다.
- 글로벌 OTA 플랫폼과의 API 연동을 확대하고, 신규 특례 사업을 추진하여 외형 확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유숙박 특례 외에도 '1인 생활형 숙박시설 특례'에 통과하여 타겟 시장을 대폭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미스터멘션에 등록하는 숙소 수를 늘리고 이를 글로벌 OTA 플랫폼과 연동해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HALLENGE

미스터멘션이 집중한 문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빈집이 쌓이고, 중소형 숙박시설의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전국 빈집 수

134,009호

! 전국의 빈집은 134,009호(도시 55,914호, 농어촌 78,095호)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조사(2024)

객실 점유율(OCC)

펜션 40.4%

공유숙박 48.2%

야놀자리서치 (2025년 4Q)

! 중소형 숙박시설의 객실 점유율(OCC, 전체 객실 중 실제 판매된 비율)은 호텔리조트와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호텔리조트 평균이 65.9%인 반면, 펜션은 40.4%, 공유숙박은 48.2%로 객실의 절반 이상이 공실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높은 공실률로 인한 불안정한 현금흐름은 호스트가 숙소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빈집을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생적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에서 직접 인구 감소를 보고 경험한 사람이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합니다. 미스터멘션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지역의 청년기업이 지역을 살린다'일 것 같아요. 빈집을 공유숙박으로 전환하고, 방문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 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

SOLUTION POINTS

미스터멘션의 차별 포인트

호스트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방문객이 지역을 장기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제도적 안정성 기반의 숙소 운영 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영업 신고증이 없는 호스트도 제도적 보호 아래 안심하고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누적 등록 공급(숙소 및 객실)이 9,000여 개를 돌파했으며, 특히 2025년 등록 호스트 수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장기 숙박 특화 플랫폼

단기 숙박 중심의 기존 플랫폼과 달리 호스트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숙박 요금을 세분화하여 장기 투숙 시 더 저렴한 맞춤형 할인가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 시 숙소 만족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플랫폼에 입점하는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생활 편의시설 등을 꼼꼼하게 검증한 뒤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지역 콘텐츠 연계 체류형 프로그램

제주관광공사·부산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등 지자체·공공기관과 MOU를 기반으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하여 체험형 관광 상품(JEJU FLOW, 부산 워케이션, 영덕 한 달 살기 등)을 기획·운영합니다.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 수

9,000개+

2025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한 등록 공급 비율

약 20%

2025년 12월 기준

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력 건수

6건

2025년 12월 기준

IMPACT STORY

미스터멘션이 만든 변화

빈집이 숙소가 되고, 방문객의 차별화된 침과 여행 경험이 쌓여 지역이 다시 살아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숙소 확대를 통한 빈집의 자원화	미스터멘션은 지역 내 방치된 빈집과 유휴 공간을 합법적인 숙박 시설로 전환하여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역을 포함한 숙박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빈집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민간 주도형 해법을 제시합니다.
	•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약 40개 지역에 숙소 공급 (부산, 남해, 영덕 등)
차별화된 침과 여행 경험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생활인구 활성화	일주일, 보름, 한 달 단위의 중장기 체류 여행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업 임직원을 위한 '워케이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로컬 브랜드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상품을 기획하여 방문객들이 지역을 깊이 경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방문객 평균 체류 기간: 약 18일 • 부산 워케이션 사업 성과: 인구감소지역(영도·서동·중·금정구) 내 1,925개 기업, 2,932명 임직원 유치 (2023.5~2024.1)
호스트 운영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숙박 기반 형성	호스트가 운영의 번거로움을 덜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의 운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숙객의 니즈가 반영된 CS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 호스트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숙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요 운영 편의 서비스: 예약·일정 통합 관리, 고객 응대 프로세스 지원, 숙소 컨설팅(소개 문구 및 사진 등록), 장기 체류 수요 기반 매칭 등

부산 인구 감소 지역에 워케이션 장기 체류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유휴 공간을 자원화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전국 인구감소지역 중 미스터멘션이 숙소를 공급하는 지역 수

40개 지역

2025년 12월 기준



방문객 평균 체류 기간

18일

2025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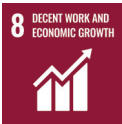


어반플레이는 유희 공간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공간 콘텐츠 솔루션 기업입니다.

어반플레이는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유희 공간을 발굴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기획·운영하여 도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설립 이후 공간 기획 및 운영(자체 공간·외부 컨설팅·전시·팝업), 도시·상권 프로젝트(이벤트형·상권형), 크리에이터 엑셀러레이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연간 1,000 팀 이상의 크리에이터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SDG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참여적,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한다.



SDG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이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3년 12월	최초 투자 시점	2021년 9월
대표자	홍주석	투자 펀드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I
홈페이지	https://www.urbanplay.co.kr/	투자 테마	지역
임직원 수	80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콘텐츠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5길 22 202호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어반플레이는 유희 공간과 로컬 콘텐츠를 연결하는 확장형 플랫폼 모델로 도시 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어반플레이는 지역의 유희 공간에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상권과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비대면 소비 확산, 오프라인 리테일 침체로 인한 도시 노후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건축가 출신 홍주석 대표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지역 기반 콘텐츠와 공간 기획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 대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검증된 실행력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 공간을 직접 임차 후 운영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건물주와 협력하는 플랫폼형 사업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어반플레이어가 공간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시설 투자 부담을 낮추고 사업 확장 속도를 높였습니다.

Future Momentum

- 어반플레이는 공간 기획, 투자 유치, 구축, 운영까지 전 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IT 기술과 데이터 기반 운영 체계를 접목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협업 크리에이터 수, 프로젝트 규모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을 운영하며 지역 창업가와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풀(Pool)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어반플레이가 집중한 문제

지역에 빈 점포는 늘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홀로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소형 상가 공실률

8.1%

한국부동산원 (2025)

! 이커머스 확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오프라인 상업 공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국 소형 상가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6.8%에서 2025년 4분기 8.1%까지 상승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단순한 임대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동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의 상권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

45.9%

국가데이터처 (2023)

고, 민간 중심의 지역 활성화 생태계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지역의 매력을 독창적인 콘텐츠로 풀어내는 로컬 크리에이터 역시 성장 과정에서 높은 장벽에 직면합니다. 창업 초기 공간 확보와 운영 자금,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은 45.9%에 불과해, 창업 후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 공간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반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KPI도 결국 '지속가능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저희가 추구하는 성과입니다.

—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

SOLUTION POINTS

어반플레이의 차별 포인트

지역과 콘텐츠와 크리에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상권과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업계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매칭 DB

지난 13년간 전국의 로컬 브랜드, 창작자, 기획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4만건 이상의 크리에이터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접목해 프로젝트 성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빠르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창작자와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타사가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헤리티지 기반의 로컬 콘텐츠 기획

단순한 공간 리모델링을 넘어 지역이 가진 역사와 문화, 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재해석합니다.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낸 공간을 통해 방문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유동 인구와 경제적 활력을 만듭니다.

구조화 금융을 통한 공간 개발 모델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해 유휴 자산을 임차 또는 간접 매입하고, 콘텐츠 기획·운영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도시 활성화가 가능한 민간 주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IMPACT STORY

어반플레이가 만든 변화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생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유휴 공간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	어반플레이는 공실 위기에 놓인 유휴 공간을 단기 임대가 아닌 5~10년 장기 계약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채워,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장기 운영하는 구조를 통해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고, 크리에이터와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연남·연희동 9개 공간, 10년간 폐업 0건 -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한 유휴 공간 면적 15,686㎡ - 로컬 크리에이터의 평균 입주 기간 4.9년
로컬 크리에이터의 자생을 위한 생태계 지원	어반플레이는 오프라인 공간 확보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공간·마케팅·브랜딩을 통합 지원하며, 창작 활동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AI BIZ CREATOR SCHOOL' 등 체계적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기술 창업가와 창작자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협업한 로컬 크리에이터 수: 약 357팀 - 어반플레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로컬 크리에이터 수: 약 2,200명
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	어반플레이는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는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 크리에이터와 함께 만드는 도심 속 축제 '연희견다'와 로컬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에디션서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외부 방문객 유입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어반플레이 기획 프로젝트(공간 및 도시·상권 프로젝트)의 총 방문객: 200만 명 - 광주, 부산 영도 등 지방 유휴 공간에 맞춤형 관광 콘텐츠 공급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처음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이를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반플레이와 함께하면서 오프라인 공간은 물론, 다양한 기획전과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접점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저희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고객층과 만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덕분에, 오디너리핏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오디너리핏* 김은수 대표

IRIS+ PI9170 Area of Buildings Reused

재생한 유휴 공간 면적
(공간 프로젝트 기준)

15,686㎡

2025년 12월 기준

IRIS+PI2998 Individuals Trained: Total

엑셀러레이팅 참여
로컬 크리에이터 수

약 2,200명

2025년 12월 기준

공간 및 도시·상권 프로젝트
총 방문객

약 200만 명

2025년 12월 기준



PEOPLE

[]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넥셀, [바이오 플랫폼]으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엔티, [식재료 공정 혁신]으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엣지케어, [웨어러블 테크]로 더 나은 일상을 만들다



넥셀은 첨단 줄기세포 기술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기업입니다

넥셀은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hiPSC) 기술⁴을 활용해 동물 대신 사람의 세포로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심근세포·신경세포·간세포 및 오가노이드 등 다양한 세포 모델을 개발하며 동물실험 대체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현재는 심장안전성 평가(NeXST), 질환 모델링, 오가노이드 플랫폼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DG 3.b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보호 및 특히, 모든 사람이 의약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4 사람의 피부나 혈액 세포를 처음 태어났을 때의 '만능' 상태로 되돌린 줄기세포이며 이를 다시 심장, 신경, 간 등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2년 9월	최초 투자 시점	2017년 3월
대표자	한충성	투자 펀드	KAKAO-CCVC 제주창조경제혁신펀드 CCVC ESG 임팩트펀드 IV
홈페이지	https://www.nexel.co.kr/ko/main		
임직원 수	45명 (2025년 12월 기준)	투자 테마	헬스케어
주소	서울 강서구마곡동로55, 7층, 8층	산업 분류	바이오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넥셀은 동물실험 중심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인간 세포 기반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표준을 이끌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동물실험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사람의 세포를 활용한 차세대 평가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FDA Modernization Act 2.0 통과와 글로벌 가이드라인(ICH) 개정으로 동물 대체 시험법(NAMs)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예측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넥셀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국제 HESI 심장 안전성 위원회에 참여하며 글로벌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세포(Cardiosight®-S)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의 참조 세포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심근세포를 활용한 독성 평가 서비스(NexST)를 상용화했습니다.
- 넥셀의 기술은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로 발생하는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임상 단계 진입 전 독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성을 높이며, 보다 안전한 신약 개발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uture Momentum

- 대형 제약사와 표준기관 중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표준 생태계의 핵심 공급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S사와 추가 계약을 체결하고, E사와 심장 오가노이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생물자원센터인 A사에 심근 오가노이드를 공급하며 국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내 주요 제약사와 독성 평가 및 iPSC 공급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 AI 기업과 함께 AI 기반 비임상·임상 통합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며 차세대 평가 시장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 세포 생산부터 보관·분석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밸류체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Mantarray, Axion 등 첨단 hiPSC 분석 장비를 대학 및 연구기관에 공급하며 연구 인프라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분석 장비 인프라와 세포 बैं킹(Cell Banking) 사업 확장을 통해 세포 자원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이 주목됩니다.

CHALLENGE

넥셀이 집중한 문제

동물실험의 한계가 신약 개발의 실패와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 동물실험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의 95%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실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 개발 성공률을 낮추고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억 9,21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되고 있으며, 사육관리·폐기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 및 자원의 투입과 환경적 부담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대규모 동물실험은 생명윤리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내 실험동물의 절반 이상(51.5%)이 최고 고통등급인 'E등급'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수반하지만, 연구 목적상 진통제나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E등급 실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물학과 줄기세포 연구를 이어오며, 동물실험을 통과한 많은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사람에게 나타날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넥셀을 창업했습니다. 넥셀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술을 통해 신약 개발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학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충성 넥셀 대표



SOLUTION POINTS

넥셀의 차별 포인트

글로벌 표준을 이끄는 신뢰도와 예측 정확도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을 돕습니다

신약 개발의 예측 정확도 향상

넥셀은 95% 이상(심근세포 기준)의 고순도 세포 분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장기와 유사한 3차원 구조의 오가노이드(Organoid)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임상 단계에서 약물의 독성과 유효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ICH 국제 가이드라인 참조 제품

넥셀의 심근세포(Cardiosight®-S)는 전 세계 심장 안전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ICH S7B) 개정 검증에 사용된 단 두 종류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ICH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제약사가 신약 허가 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표준으로, 넥셀은 글로벌 표준 검증에 참여하며 기술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ISO 9001 기반 대량 생산 및 품질 관리

한 배치(Batch)당 수백 바이알 이상, 월 최대 1,000바이알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ISO 9001 인증 기반의 엄격한 품질 관리(QC/QA) 시스템을 운영하며 품질 편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과 제약사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포 공급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MPACT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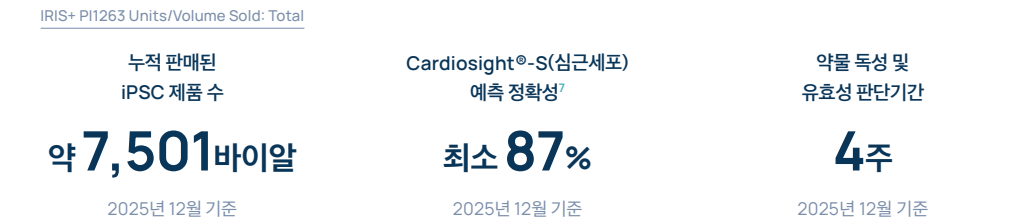
넥셀이 만든 변화

인간 세포가 동물실험의 한계를 넘어, 더 안전한 신약 개발을 앞당깁니다

동물실험 의존도를 낮춘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에 기여	넥셀의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기반 제품과 안전성 평가 서비스(NeXST)를 통해 기존 동물실험 중심의 신약 개발 방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약사와 연구기관은 넥셀의 세포 및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약물의 독성과 효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고 보다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누적 판매된 iPSC 제품 수: 약 7,501바이알 (2016년~2025년) • NeXST 서비스를 통해 평가한 누적 신약 후보물질 수: 117개 물질 (2017년~2024년)
신약 안전성 예측력을 높여 임상 실패 위험과 환자 피해 방지	넥셀의 인간 유래 세포 모델은 동물실험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간 특이적 반응을 전임상 단계에서 보다 정밀하게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독성 평가 테스트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임상시험 진입 전 잠재적인 독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임상 참가자와 환자의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Cardiosight®-S(심근세포) 예측 정확성: 87% 이상 (기존 동물실험 평균은 50~60% 수준) • 약물 독성 및 유효성 판단기간: 수년 → 4주 단축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넥셀의 NeXST 서비스를 활용해 환자 유래 세포 기반 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존 동물 실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약물의 효능과 반응성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보다 빠르게 검증할 수 있었고, 향후 추가 적응증 확대 가능성까지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NeXST 서비스 고객



5 심근세포에서 실제 인간 심근세포가 차지하는 비중

6 특정 질환 또는 환자군의 특성을 반영한 질병 모델링 및 약물 반응 평가를 위한 세포 자산의 규모로 실험의 예측도를 높이는 요소

7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표준 약물 세트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실제 인간 임상 결과와 일치하는 '임상 상관관계 점수'

44

45



엔티는 신선 나물 가공 기술과 생산자 직거래 방식을 결합해 농가의 자립을 돕는 나물 유통 플랫폼입니다.

주식회사 엔티는 나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연결하는 나물 전문 플랫폼 기업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만 알려졌던 희귀 나물을 발굴하고, 소규모 농가와 계약 재배 및 공유농장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합니다. 수확된 나물은 자체 전처리 공정에서 나물별로 최적의 방식으로 손질되어 자사물(나물투데이), 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 매장, 마켓컬리·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급식업체·프랜차이즈 등 B2B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나물 판매 노하우를 전수하는 셀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NT Partner)을 운영하여 나물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SDG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대한다.



SDG 2.5

2020년까지 국가·지역(대륙)·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식물 및 종자은행의 원활한 관리 등을 통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자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관련 전통 지식과 유전적 자원 활용을 통한 혜택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이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7년 1월	최초 투자 시점	2023년 1월
대표자	서재호	투자 펀드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I CCVC ESG 임팩트펀드 IV
홈페이지	https://namultoday.com/		
임직원 수	75명 (2025년 12월 기준)	투자 테마	농식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	산업 분류	ICT/플랫폼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엔티는 사라져가는 희귀 나물 종자를 발굴하고, 유통·공정의 한계를 넘어 나물 재배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Why We Invest

- 건강식과 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나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손질과 데침 과정의 번거로움은 여전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엔티는 체계적인 전처리 시스템을 통해 손질한 나물을 공급하며, 일반 소비자(B2C)와 급식·반찬가게 등 기업(B2B) 수요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 SK임업 등과 협력해 공유 농장을 운영하고, 30개 이상의 협업 농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과 계약 재배를 통해 공급 리스크를 줄이고, 원물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고품질 물량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 엔티는 협업 농장과 소규모 농가에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제안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물 손질에 숙련된 60~70대 고령 근로자를 적극 고용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Future Momentum

- K-푸드 확산과 함께 신선식품 수요가 증가하며 전처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엔티는 노동집약적 전처리 공정을 효율화해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작물별 전처리 데이터를 축적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제철 작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 자체 육묘장에서 모종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생산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물량을 매일·유통하는 구조를 통해 원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간 유통 격차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농가 대상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엔티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엔티가 집중한 문제

전통 나물은 사라지고, 농가 소득은 정체되며, 소비자는 나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산나물 생산량 기준 상위 10종의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93.6%(2014년)에서 98.5%(2024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호나물·질경이·눈개승마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재배되던 희귀 나물 종자가 유통망 부재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농가의 평균 계약 재배율이 14.6%(2021년)에서 12.6%(2024년)로 감소함에 따라, 판매처 확보와 농가의 수입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전업 농가의 농업소득은 2024년 약 1,519만원으로 20년간 정체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가지 있는 나물 종자가 많지만 안정적인 유통 체계가 없어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다 사라져가는 희귀 종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농촌의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득 정체로 인한 농가 위기와 고부가 가치 작물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엔티는 농민들이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서재호 엔티 대표

전체 산나물 생산량 중
상위 10종이 차지하는 비중

98.5%

산림청 (2024년)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평균 계약 재배율

12.6%

농협중앙회 (2024년)

전업농가의 평균 농업 소득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연 1,519만 원

국가데이터처 (2024년)

SOLUTION POINTS

엔티의 차별 포인트

나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물의 대중화를 선도합니다.

희귀 나물 자원화 및 재배 기반 구축

전국 유통이 어려웠던 희귀 나물을 발굴하고 씨앗이 아닌 6개월~1년 육묘한 모종을 공급하여 전국 단위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만 소비되던 나물은 전처리 공정을 거쳐 전국 단위로 재배·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원물 공급 채널의 다각화

계약재배, 공유농장, 자체 농장 운영을 통해 원물 수급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특히 기업·지자체 유희 임야를 활용한 공유농장 모델과 자체 농장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원가율을 관리하고, 계절성과 지역 편차가 큰 나물 공급망의 변동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셀러 인큐베이팅 (NT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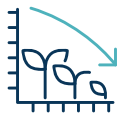
4주 교육 과정을 통해 나물 판매 노하우를 전수하고, 셀러 고유 브랜드 출시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누적 322명의 전문 셀러를 배출했으며, 이를 통해 엔티 중심의 독립적인 나물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농가 수

400곳

2025년 12월 기준



최근 3년 원가율 감소

13.5%

2023년 대비 2025년 변화



셀러 인큐베이팅 누적 참여자 수

322명

2025년 12월 기준

IMPACT STORY

엔티가 만든 변화

사라져가던 전통 나물이 다시 재배·유통되고,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소멸 위기의 나물을 다시 식탁으로

엔티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던 희귀 나물을 발굴·육묘하고 이를 전국 유통망에 연결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물 종자가 지속적으로 재배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호나물, 눈개승마, 어수리나물 등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구매조차 어려웠던 품목들을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연간 판매 나물 종류 수: 30종(2023년) → 50종(2024년) → 70종(2025년)으로 확대
- 전체 매출 중 희귀 나물 비중: 30%

농가가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엔티는 판로 확보가 어려워 소득이 불안정했던 소농가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재배한 나물을 직접 매수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판매 걱정 없이 재배에만 집중하고, 이후의 전처리과정은 엔티가 전담하는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통해 농촌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연 300만원 이상 계약 농가 수: 100곳
-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하는 농가 수: 140곳

셀러 육성을 통한 나물 소비 채널의 다각화

다양한 나물 종자를 보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물 소비 시장 자체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엔티의 셀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NT Partners)은 나물 판매 노하우가 부족했던 개인 셀러들을 브랜드 판매자로 양성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빠르게 넓힙니다. 4주간의 전문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배출된 셀러들은 나물 소비 채널을 다각화 하고 있습니다.

- 셀러 인큐베이팅 참여자 수: 18명(2024년) → 304명(2025년)으로 성장
- 셀러를 통한 나물 판매 증가액: 월 2억 원

작은 규모로 나물을 키우다 보니 수확 철마다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엔티와 계약 재배를 시작한 뒤로는 판로 걱정 없이 오직 좋은 품질의 나물을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희귀 종자 재배를 제안받고 교육까지 지원해주니, 해마다 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나 농사짓는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 계약 재배 참여 농가

희귀나물에 대한
매출 비중

약 30%

2025년 12월 기준

연 300만원 이상
계약 농가 수

100곳

2025년 12월 기준

3년 이상 거래를
지속하는 농가 수

140곳

2025년 12월 기준

셀러 인큐베이팅
참여자 수

304명

2025년 12월 기준



엣지케어는 AI와 초음파 패치 기술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엣지케어는 웨어러블 초음파 패치와 온디바이스 AI를 결합해, 방광·심장·폐 등을 실시간·비침습·연속으로 모니터링하는 패치형 초음파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방광 잔뇨량 측정기(EdgeFlow UH10), 연속 방광 모니터링 패치(EdgeFlow UW20), 비침습 혈역학 모니터링 기기(EdgeFlow CW10), 초음파 젤패드, 패치형 초음파 센서 등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DG 3.8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SDG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20년 5월	최초 투자 시점	2021년 9월
대표자	유양모	투자 펀드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I
홈페이지	https://edgecare.co.kr/	투자 테마	헬스케어
임직원 수	45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제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12층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엣지케어는 초음파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로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고령화로 배뇨 장애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배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부족, 의료진의 반복적인 측정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동 측정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실시간 웨어러블 모니터링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엣지케어는 독자적인 64채널 전기식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방광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기기를 소형화해 패치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UW20)를 구현했으며, 전기식 방광 잔뇨량 측정기 제품(UH10)은 경쟁사 대비 약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시장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 필립스 헬스케어 등 글로벌 기업 출신 인력과 초음파 분야 전문가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통상 3~7년이 걸리는 의료기기 상용화 과정을 18개월 만에 완료하며 연구 개발부터 인허가, 양산까지 이어지는 사업화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Future Momentum

- 방광 용적 측정기인 UH10은 글로벌 인허가와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제품 UW20은 개발을 완료해 2026년 4월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또다른 주력 제품인 CW10은 심박출량(CO)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환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나 시술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초음파 기반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HALLENGE

엣지케어가 집중한 문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습적인 측정과 모니터링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뇨장애 진료 인원

약 75만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 국내 배뇨장애 진료 인원은 약 75만 명에 달하지만, 증상을 방치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배뇨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하루 평균 4~5회 씩 도뇨관을 이용해 소변을 배출해야 하며, 이 경우 요로감염 위험이 매일 3~10%씩 증가해 30일 후에는 감염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뇨관 삽입 30일 이후
요로 감염 누적 발생률

100%

CDC (2009)

폐동맥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비율

23.2%

Ahmed et al. (2016)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배뇨장애는 전 세계 4억 명이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방광이 1리터까지 차도록 방치된 환자를 보면서, 기술로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쓰여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의료기술을 보다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 유양모 엡지케어 대표

SOLUTION POINTS

엡지케어의 차별 포인트

전문의가 없어도, 병원 밖에서도,
패치 하나로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연속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구현

기존 초음파 장비는 크고 무거워 상시 부착이 어려웠지만, 엡지케어는 64개 전기식 센서를 활용해 기기를 패치 형태로 소형화(UW20)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고점착 젤패드를 통해 최대 72시간 이상의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AI 기반 자동 분석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

자체 개발한 AI가 방광 위치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잔뇨량을 분석합니다(UH10, UH20). 전문 의료진이 아니어도 일관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의료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비침습적 측정으로 환자 안전성 제고

경동맥과 대퇴동맥에 초음파 패치를 부착해 심박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CW10). 기존 폐동맥 카테터 방식과 달리 환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나 시술이 필요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래 기관 수

258곳

2025년 12월 기준

주요 제품별 글로벌 인증 현황

방광 잔뇨량 측정기 (UH10)	FDA	2024년
	CE-MDR	2025년
연속 방광 모니터링 패치 (UW20)	FDA	2026년
	CE-MDR	2026년 목표

IMPACT STORY

엡지케어가 만든 변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불필요한 도뇨 감소 및 감염 위험 완화

엡지케어의 웨어러블 기기(UW20)는 방광 잔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준치에 도달하면 의료진에게 알람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 이상의 도뇨관 삽입을 줄이고, 요로감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반복적인 시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2시간 연속 모니터링으로 도뇨관 삽입 횟수 감소
- 요로 감염으로 인한 환자과 병원 부담 비용 최소화

배뇨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훈련 지원

방광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엡지케어는 실시간 잔뇨량 데이터를 제공해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배뇨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향후 홈케어 제품(UW40)이 출시되면 병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요실금·과민성 방광 등 지속적인 재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실시간 잔뇨량 기반 배뇨 훈련 지원
- 요실금 및 과민성 방광 환자의 기능 회복 보조
- 가정 기반 재활 관리 환경 확대

의료진 업무 부담 경감과 환자 관리의 효율성 향상

기존에는 간호사가 4~6시간 간격으로 환자를 직접 찾아가 잔뇨량을 확인해야 했지만, UW20은 기준치 초과시 자동으로 알람을 제공합니다. 의료진은 필요한 시점에만 환자를 확인할 수 있어 반복적인 측정 업무를 줄이고 보다 중요한 환자 관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중앙감시장치 연동으로 잔뇨량 알람 자동화 → 간호사 반복 측정 업무 감소

IRIS+ P13291 Client Time Savings

환자 1명당 잔뇨량 측정을 위해
간호사가 소요하는 시간

90분/일 → 10분/일

2026년 목표

도뇨관 사용 환자의
요로감염 위험도 감소

20%

2026년 목표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
EdgeFlow UH10



웨어러블 방광 모니터링 솔루션
EdgeFlow UW20



PL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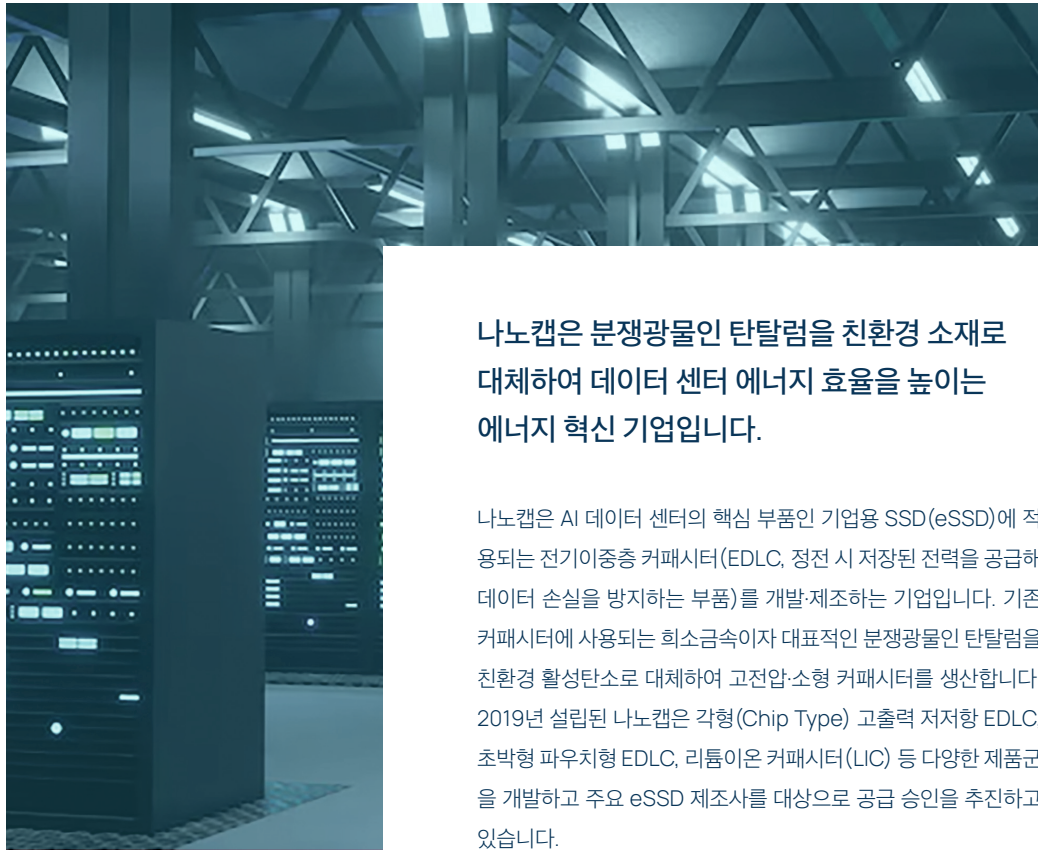
[]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나노캡,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마들렌메모리, [순환 소비]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씨엔티솔루션, [첨단 소재 혁신]으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키나바, [폐기물 혁신]으로 자원의 미래를 바꾸다



나노캡은 분쟁광물인 탄탈럼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여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혁신 기업입니다.

나노캡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기업용 SSD(eSSD)에 적용되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EDLC, 정전 시 저장된 전력을 공급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부품)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기존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이자 대표적인 분쟁광물인 탄탈럼을 친환경 활성탄소로 대체하여 고전압·소형 커패시터를 생산합니다. 2019년 설립된 나노캡은 각형(Chip Type) 고출력 저저항 EDLC, 초박형 파우치형 EDLC, 리튬이온 커패시터(LIC)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주요 eSSD 제조사를 대상으로 공급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SDG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히 줄인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9년 9월	최초 투자 시점	2024 2월
대표자	이문배	투자 펀드	CCVC ESG 임팩트펀드 IV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 II
홈페이지	https://www.nanocap.co.kr		
임직원 수	7명	투자 테마	에너지
주소	수원 오목천로 152번길 28 스타전자 3층	산업 분류	제조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나노캡은 분쟁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커패시터 기술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SSD(eSSD)의 전력 손실 보호(PLP)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고성능·고효율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나노캡은 세계 최초로 4V 고전압 EDLC를 상용화하며 기존 탄탈럼 커패시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품 수를 줄이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며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Future Momentum

- 글로벌 주요 파트너사인 F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기술 성능을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는 상위 제조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나노캡은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장(자동차 전자장치) 등 인접 시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전압 EDLC 상용화 성공과 다수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나노캡이 집중한 문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와 분쟁광물 의존도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 945TWh로 2024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약 10,735kWh)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8,800만 명에 해당하는 전력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 eSSD의 핵심 부품인 탄탈럼 커패시터는 재활용률이 1% 미만에 불과하며, 폐기 시 복잡한 재처리 공정과 오폐수 발생이 불가피해 환경적 부담이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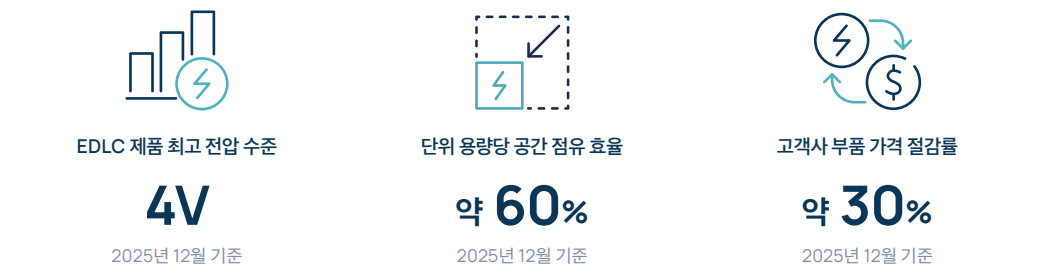
! 탄탈럼 원물 생산의 약 41.9%가 분쟁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 노동, 무장단체 자금 유입 등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30년 이상 커패시터 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해오면서, 기존 제품으로 경쟁하기 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노캡은 저전력화와 부품 국산화, 그리고 분쟁광물 문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이 성장할수록 더 중요해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이문배 나노캡 대표

SOLUTION POINTS	
나노캡의 차별 포인트	친환경 소재와 고전압 기술을 결합해 데이터 센터 부품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고전압 EDLC 상용화	EDLC 업계에서 2.5V에서 3V로 전압을 높이는 데 20년이 걸렸지만, 나노캡은 독자적인 전극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4V 고전압 EDLC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두 개 제품을 직렬로 연결해야했던 구조를 단일 부품으로 대체하여 부품 수를 줄이고 설계 효율을 높였습니다. 현재는 차세대 5V 제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증대	기존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분쟁광물인 탄탈럼 대신 활성탄소를 적용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 낮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2025년 기준 약 60% 수준의 공간 점유 효율을 구현해 보드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크게 줄였습니다.
eSSD 맞춤형 설계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나노캡은 범용 부품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요 고객사의 eSSD 구조와 전기적 사양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제공합니다. 각 성능에 맞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발열과 전력 손실을 줄이고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또한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내열성을 확보해 자동화 생산 공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IMPACT STORY	
나노캡이 만든 변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합니다.
데이터 센터 에너지 소비 감소에 기여	나노캡은 기업용 SSD(eSSD)에 적용되는 고전압 EDLC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전력 손실을 줄이고, 시스템이 보다 적은 에너지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노캡 제품 적용 시 기존 탄탈럼 커패시터 대비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약 20% 절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소비 감소율: 기존 탄탈럼 커패시터 대비 전체 시스템 에너지 소비량 약 20% 감소
탄탈럼 대체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 및 공급망 리스크 해소	나노캡은 분쟁광물인 탄탈럼을 국내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활성탄소로 대체함으로써 제조와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 탄탈럼 커패시터는 재활용이 1% 미만으로 낮고 제조 공정에서 다량의 오폐수가 발생하지만, 나노캡의 활성탄소 소재는 폐기 후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해 자원 순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또한 특정 분쟁 지역에 집중된 탄탈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춰 아동 노동, 무장 단체 자금 유입 등 윤리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사 기존 분쟁광물 부품 대체율: 10% (F사 기준, 2026년 20% 목표)

기존 eSSD 전력 손실 보호(PLP) 회로는 16V 이상의 높은 전압으로 인해 안정성과 설계 효율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 다. 나노캡의 EDLC는 저회 전력 관리 IC와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컨트롤러의 발열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고성능 저전력 eSSD 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파트너 기업 F사 담당자





마들렌메모리는 패션브랜드의 공식 중고마켓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패션 문화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마들렌메모리는 패션 브랜드가 자체 공식 중고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물류·운영 솔루션을 일괄 제공하는 B2B 리세일 플랫폼 기업입니다. 2018년 11월 설립된 마들렌메모리는 브랜드 전용 중고마켓 구축 서비스 ‘릴레이(Relay)’, 자체 중고 판매물 ‘앤티어스(Antures)’, 현대백화점·OK캐쉬백 등 유통·금융사와 연계한 ‘트레이드인(Trade-in)’ 보상 매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인다.

13 CLIMATE ACTION

SDG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전략·계획에 통합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8년 11월	최초 투자 시점	2023년 6월
대표자	유재원	투자 펀드	CCVC 신디케이트리드펀드 II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I CCVC ESG 임팩트펀드 IV
홈페이지	https://the-relay.com/		
임직원 수	19명 (2025년 12월 기준)	투자 테마	순환경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2층, 207호	산업 분류	ICT/플랫폼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마들렌메모리는 공식 중고마켓을 통해 중고 거래의 심리적 문턱을 낮춤으로써, 의류 리세일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냅니다.

- Why We Invest
- 패션 산업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2023년 32조 원 규모로 8배 성장이 예상됐고, 특히 의류·잡화 분야만 6.4조 원에 달하는 수요가 발견됐습니다.
 - 마들렌메모리는 ‘중고는 불편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멀티 브랜드의 공식 중고마켓을 선점(First Mover)했습니다. 각 브랜드의 기존 고객군과 상품 데이터를 API로 연동해, 추가 비용 없이 사업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 15년 이상의 패션·커머스 경력을 보유한 유재원 대표와 황정진 이사는 업계 실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셜벤처 ‘오르그닷’에서 5년간 호흡을 맞추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해 완성도 높은 사업 모델을 이끌고 있습니다.

- Future Momentum
- 마들렌메모리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동력인 패션 브랜드 파트너십 부문에서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자 당시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 LF, FnF 등 국내 패션 대기업과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 및 OK캐쉬백과 같은 전자금융사 등으로 협업을 확장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 중고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결정 짓는 ‘양질의 매입 물량’ 확보 측면에서도 마들렌메모리는 B2B 매입 프로세스의 고도화 및 다양한 채널 다각화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중고 물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중고 매물을 더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간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대량 매입 옵션을 추가하는 등 중고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AI 착장 이미지 및 자동 사이즈 측정 모델을 도입해 중고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지 않았던 5060 세대가 중고 시장의 신규 고객군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CHALLENGE

마들렌메모리가 집중한 문제

버려지는 옷은 늘어나는데, 중고 거래는 여전히 불편하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국내 폐의류 발생량은 2020년 기준 8만 2,422톤으로, 10년 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섬유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며, 섬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약 20%에 달합니다.

! 전 세계 의류 재활용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입던 옷을 다시 유통하는 중고 거래 절차가 번거롭고, 품질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래 창구가 부족하다 보니, 가치 있는 의류조차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소각되는 비율이 발생합니다.

! 패션 브랜드들은 중고마켓 구축에 필요한 기술·물류·운영 노하우가 없어 자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반품·하자 제품은 소각되거나 아울렛 판매에 그치는 등 중고 거래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중고 거래가 불편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의류 재사용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중고마켓이라면, 소비자는 믿고 거래할 수 있고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들렌메모리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 황정진 마들렌메모리 이사

국내
폐의류 발생량

8만 2,422톤

환경부(2020)

섬유 산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대 8%

UNEP (2025)

전 세계
의류 재활용 비율

12%

국가데이터처 (2024)

SOLUTION POINTS

마들렌메모리의 차별 포인트

패션 브랜드가 중고마켓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물류·운영을 한 번에 제공합니다.

브랜드 전용 중고마켓 구축

고객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전용 중고마켓을 구축하고, 자사물과의 API 연동으로 상품 정보를 자동 연결합니다. 소비자는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채널에서 중고 거래를 경험합니다.

통합 물류 서비스

소비자로부터의 수거, 검수, 세탁·수선을 통한 재상품화, 분류·보관·배송까지 전 과정을 마들렌메모리가 직접 관리합니다. 브랜드는 운영 부담 없이 중고마켓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브랜드 선택권

마들렌메모리는 특정 브랜드 전용 마켓인 '컨시어지' 운영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 의류를 포인트로 보상 매입하는 '트레이드인(Trade-in)' 서비스를 통해 취급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기준 총 178개 브랜드, 33,209개 의류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상품 콘텐츠 자동화

중고 제품 특성상 개별 상품마다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AI 착장 이미지 생성과 자동 사이즈 측정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일반 중고 플랫폼 대비 풍부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경험의 질을 높입니다.

누적 이용자(소비자) 수

56,522명

2022년 대비 9.2배

2025년 12월 기준

플랫폼을 통해 매입한 상품의 브랜드 수

178개

2022년 대비 00.0%

2025년 12월 기준

플랫폼을 통한 의류 매입량

33,209개

2022년 대비 9.6배

2025년 12월 기준

IMPACT STORY

마들렌메모리가 만든 변화

버려지거나 소각될 뻔한 옷이
다시 누군가의 옷장으로 돌아옵니다.

중고 거래 경험과 의지 증가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중고마켓이라는 신뢰 덕분에, 이를 한 번 경험한 소비자가 중고 거래를 반복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중고 거래에서 소외됐던 40~50대 소비자층이 주요 이용자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중고 거래 문화가 특정 세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5회 이상 반복 이용자 수: 169명(2022) → 2,292명(2025년), 약 13.6배 증가
- 마들렌메모리를 통해 중고 구매 고려 의지: 90.5%(2025년 상반기 설문)
- 주요 이용자 연령대: 40~5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 차지

파트너 기업 인식 개선

마들렌메모리를 만난 패션 브랜드들은 중고마켓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깨고,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재판매할 만큼 품질이 좋은 브랜드'라며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마들렌메모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긍정 응답: 97.8%(2025년 상반기 설문)
- 현대백화점·OK캐쉬백 등 유통·금융사로 파트너십 영역 확장

의류 폐기물 감소

마들렌메모리를 통해 매입된 의류는 검수·세탁·재상품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립·소각될 뻔한 의류가 재사용되며, 의류 폐기물과 그에 따른 환경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의류 폐기물 감소량: 누적 약 12.9톤(2025년 기준, 의류 평균 무게 기준 산출)
- 의류 재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194 tCO₂eq (2025년 기준)¹⁰

최근 들어 중고거래의 가치는 단순히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비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나 패션업계의 의류 생산과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어, 바이백 서비스는 자원순환형 소비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현대 바이백 담당자

IRIS+ PI4060 Client Individuals: Total

연간 5회 이상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회원 수

2,292명

2025년 12월 기준

IRIS+ PI5376 Greenhouse Gas
Reductions due to Products Sold

마들렌메모리를 통해
중고 구매 고려 의지

90.5%

2025년 3월 기준

의류 재사용으로 감소한
탄소 배출량(tCO₂eq)

194tCO₂eq

2025년 12월 기준



씨엔티솔루션은 독자적인 건식분산 기술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소재 혁신을 이끄는 기업입니다.

씨엔티솔루션은 탄소나노튜브(CNT, 전기전도성과 강도가 뛰어난 첨단 탄소 소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독자적인 건식분산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수소연료전지·전자부품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맞춤형 CNT 복합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2011년 설립 이후 CNT 복합소재 연구·개발부터 고객사 제품 개발 협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왔으며, 정전기 방지 컴파운드,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이차전지 도전재, 방염·단열 패드 등 130여 종의 제품을 개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DG 7.3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SDG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히 줄인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1년 10월	최초 투자 시점	2024년 1월
대표자	서정국	투자 펀드	CCVC ESG 임팩트펀드 IV
홈페이지	https://www.cntsolution.co.kr/	투자 테마	에너지
임직원 수	33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제조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길 380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씨엔티솔루션은 친환경 건식분산 기술로 에너지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소재 생산 방식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핵심 소재의 성능과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나노튜브(CNT)는 차세대 에너지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균일한 분산이 어렵고 제조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와 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씨엔티솔루션은 탄소나노튜브(CNT)를 액체 용매 없이 20분 이내에 균일하게 섞는 독자적인 건식분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정 대비 전기전도성을 높이고 원료 배합 시간을 40% 이상 단축하는 등 생산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 독성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공정을 통해 제조 공정을 15단계에서 10단계로 줄이고 전력 사용량을 약 47% 절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배터리 제조 원가를 약 20% 낮추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Future Momentum

- 씨엔티솔루션은 건식 분산 CNT 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원료 및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분야에서 고객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데이터 센터 확대와 수소 산업 성장에 따라 관련 소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업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차세대 핵심 소재인 양자점(Quantum Dot) 개발을 완료하며 신규 성장 동력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양자점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태양전지와 바이오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HALLE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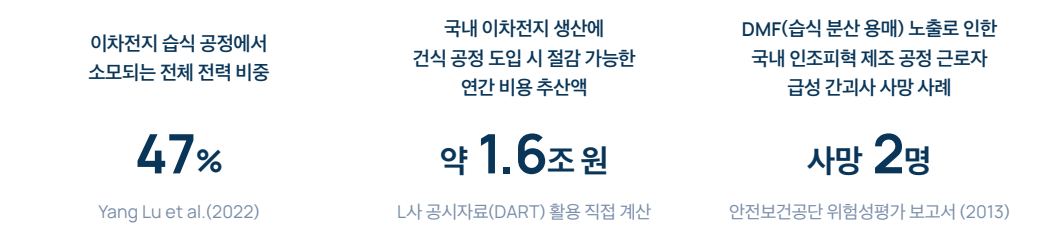
씨엔티솔루션이 집중한 문제

에너지 소재 생산 과정의 비효율과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산업 전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이차전지와 첨단 소재 산업은 탄소나노튜브(CNT)를 액체 용매에 섞는 습식 분산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용매를 제거하기 위한 건조·열처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건조 과정은 전체 제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하며, 공장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47%가 이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⁹ 특히 용매 제거를 위한 열처리 공정에만 무려 12~24시간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 기존 습식 분산에 사용되는 주요 용매인 DMF는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급성 독성간염을 유발하며, 폭발과 화재 위험도 존재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⁹ Tesla 공장 인프라 관련 연구에 따르면, CNT 분산 공정을 건식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전기요금(약 9,500만 달러) 중 약 4,465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됨.



우리나라 첨단 소재 산업은 여전히 많은 핵심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소재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소재 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 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문제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씨엔티솔루션은 CNT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조 과정까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건식분산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정국 씨엔티솔루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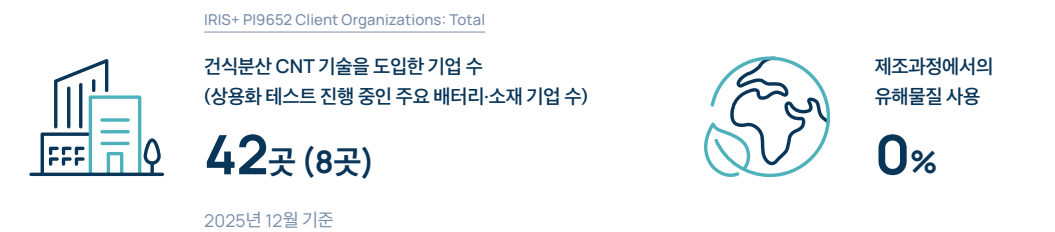
SOLUTION POINTS	
씨엔티솔루션의 차별 포인트	독자적인 건식분산 기술로 다양한 산업의 첨단 소재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산업 적용 가능성	씨엔티솔루션의 건식분산 기술은 이차전지 도전재, 수소 연료전지 분리판, 전자부품 정전 기 방지 소재, 전기차 방열패드, 방산 스텔스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 나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산업에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성과 활용 범위가 넓습 니다.
고전도성 구현을 통한 성능 향상	CNT의 뭉침 현상을 최소화하는 독자적인 건식분산 기술을 통해, 전기전도성을 100배에 서 최대 10,000배까지 향상시킵니다. 적은 소재 사용량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을 높이며, 에너지 소재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천 특허 기반 기술 경쟁력 확보	CNT 건식분산 핵심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포함해 누적 59건의 출원 및 40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경쟁사의 진입 장벽을 구축하 며 차세대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MPACT STORY	
씨엔티솔루션이 만든 변화	에너지 소비와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조 공정 혁신에 기여합니다.
이차전지 제조의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	씨엔티솔루션의 건식분산 CNT 기술은 건조·열처리 공정을 줄여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 하는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 효율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며, 배터리 제조사들의 건식 공정 전환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건식 CNT 기술 도입 기업: 42곳 • 국내외 상용화 테스트 진행 중인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 8곳 • 공정 단계 약 33% 단축 → 소비 전력 47% 절감할 것으로 추정
유해 화학물질 없는 CNT 공정 환경 조성	기존 CNT 습식 분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던 독성 용매 DMF는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급성 독성간염을 유발하고 폭주 반응 위험까지 내포한 물질입니다. 씨엔티솔루션의 건식분 산 기술은 해당 유해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CNT를 활용하는 제조 현장의 화학 사고 위험과 환경 부하를 동시에 낮춥니다. • 제조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0%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건조·열처리 공정은 전력 소비와 생산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씨엔티솔루션의 건식분산 기술은 공정 단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 용매 배출이 차단되는 ESG 성과까지 더해져 실무진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건식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씨엔티솔루션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최적의 결정이었습니다.

— 파트너 배터리 제조사 기술개발팀 담당자





키나바는 유기성 폐기물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그린테크 혁신 기업입니다.

키나바는 하이브리드 수열탄화(HTC) 기술을 기반으로 유기성 폐기물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G2E(Green Waste to Energy) 솔루션 기업입니다. 2019년 설립된 키나바는 유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등으로 전환하는 G2E(Green Waste to Energy) 기술과 생산 설비 및 운영 솔루션까지 제공합니다.



SDG 12.4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히 줄인다



SDG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진화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9년 6월	최초 투자 시점	2019년 12월
대표자	최강일	투자 펀드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
홈페이지	https://www.kinava.com/new/	투자 테마	순환경제
임직원 수	12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제조
주소	서울 서초구 현릉로 7 701~704호		

IMPACT POINTS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유기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

- 키나바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방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악취, 막대한 양의 에너지 소비를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수열탄화(Hybrid HTC)' 기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매립·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성 폐기물에 산업 폐목재 등을 혼합해 수열탄화 및 고분자 반응을 이용하여, 친환경 고형·고체 연료(그린펠릿)를 생산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건조 방식 대비 슬러지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까지 줄이는 '저비용·고효율·친환경' 공정 혁신 모델입니다.

Future Momentum

- 폐목재 매립 금지 및 악성 폐기물 처리 제한 등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 속에서 특히 부처리 폐목재(CCA Wood), 가축 분뇨 등 처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주목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 중입니다.
- 실제 환경에서 적용 및 신뢰성 검증이 이뤄진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7단계로, 일일 100톤 규모의 전남 구례 G2E센터 완공을 통해 상용 플랜트 설계 및 운영 능력까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고품격 그린펠릿 판매 및 유기성 폐기물 전 공정에 대한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 확보로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CHALLENGE

키나바가 집중한 문제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한계가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매년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유독성·유기성 폐기물은 기존 매립과 퇴비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 발암물질 배출과 2차 오염 리스크를 유발하며 환경 오염과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국내 또한 가축 분뇨의 91.4%가 퇴비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리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비 80배 강력한 메탄이 배출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고질적인 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유기성 폐기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수분 함량은 기존 건조 방식에서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야기하여, 국내 유기성 재생에너지 비중(2.1%)을 정체시키는 기술적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퇴비화·매립하는 경우
배출되는 메탄의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효과

80배

IPCC (2024)

가축 분뇨의 퇴비화 및
매립 방식 처리 비중

9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0)

호주에서 매립하는
목재 폐기물 비중

60%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2024)

연구실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 키나바를 설립하고 내부 에너지·공학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기술적 장벽을 허물어갔죠. 특히 세상이 창조되고 맨 마지막 단계가 폐기물이라고 보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 자원 순환의 사이클을 완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 최강일 키나바 대표

SOLUTION POINTS

키나바의 차별 포인트

첨단 G2E 솔루션으로 구현하는 유기성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합니다

통합 G2E 솔루션 제공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수열탄화(Hybrid HTC)’기술로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재생 연료 생산부터 바이오가스 설비 구축, 플랜트 운영까지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발열량 친환경 연료 생산

5,000~7,000kcal/kg의 고발열량 그린펠릿을 생산하며, 기존 기술로 제거가 어려웠던 우분 내 염분과 염소를 분리 배출하여 연료 순도를 높이고 설비 부식까지 방지합니다.

국내외 상용화 성과 확산

전남 구례에 일일 100톤 규모 상용 플랜트를 완공했으며, 북미(캐나다·미국), 호주, 태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조인트벤처 설립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 시간 단축¹⁰

2,160시간 → 3시간

2024년 10월 ~ 2025년 12월 기준



슬러지 감소로 인한 연간 비용 절감액

21억 원 (100Ton/일)

2025년 12월 기준



특허 등록

10건

2025년 12월 기준

¹⁰ 유기성 폐기물이 분해되어 퇴비가 되는 전체 부숙 과정에 걸리는 시간 단축 정도

IMPACT STORY

키나바가 만든 변화

탄소를 저감하는 자원순환 혁신 기술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협업 시설에서 자원순환 거점으로

하이브리드 수열탄화 공정은 밀폐된 설비 내에서 악취 유발 물질을 원천 분리하여, 시설 인근 지역사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복합 악취도를 정부의 기준치(500 이하)보다 낮은 300 이하로 관리하며, 악취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를 99.99% 수준으로 감소시킵니다.

- 슬러지 원물 대비 복합 악취도 100배 감소 (30,000 → 300)
- 악취 원인 물질 제거: 황화수소 99.99% 감소, 암모니아 100% 제거

에너지 소비 절감과 친환경 연료 생산

공정 중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체 에너지 순환 구조를 통해 기존 건조 방식 대비 에너지 소비를 70% 절감합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석탄급 발열량(5,000~7,000kcal/kg)의 그린펠릿과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바이오차를 생산합니다.

- 기존 건조 방식 대비 에너지 소비 약 70% 절감
- 카본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역량을 인정 받아 그린벤처 100 기업에 선정

상용화 기술의 확장을 통한 상생 모델 구현

전남 구례 상용 G2E 센터 완공(2024년 10월)을 기점으로 기술 상용화를 실증하고, 호주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글로벌 자원순환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전남 구례 상용 G2E 센터: 일일 100톤 처리
- 호주 G2E Climate Tech 조인트벤처 설립

호주에서도 방부액이 스며든 폐목재(CCA) 처리가 정말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매립 말고는 방법이 없나 싶었는데, 키나바의 하이브리드 수열탄화 기술을 보고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영상 Clip을 보고 호주 지방정부 관계자들도 처리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목재(CCA) 처리 뿐 아니라 고체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더욱 놀랐습니다. 환경 오염 걱정 없이 이 자원들을 다시 쓸 수 있게 된 건 우리 지역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G2E Climate Tech (호주 현지 조인트벤처) 관계자

IRIS+ OD8781Recycling Plant Capacity

설립한 G2E 센터의 폐기물 처리 용량

100ton

2025년 12월 기준

IRIS+ OI6697 Energy Conserved

기존 방식 대비 에너지 소비 감소율¹¹

약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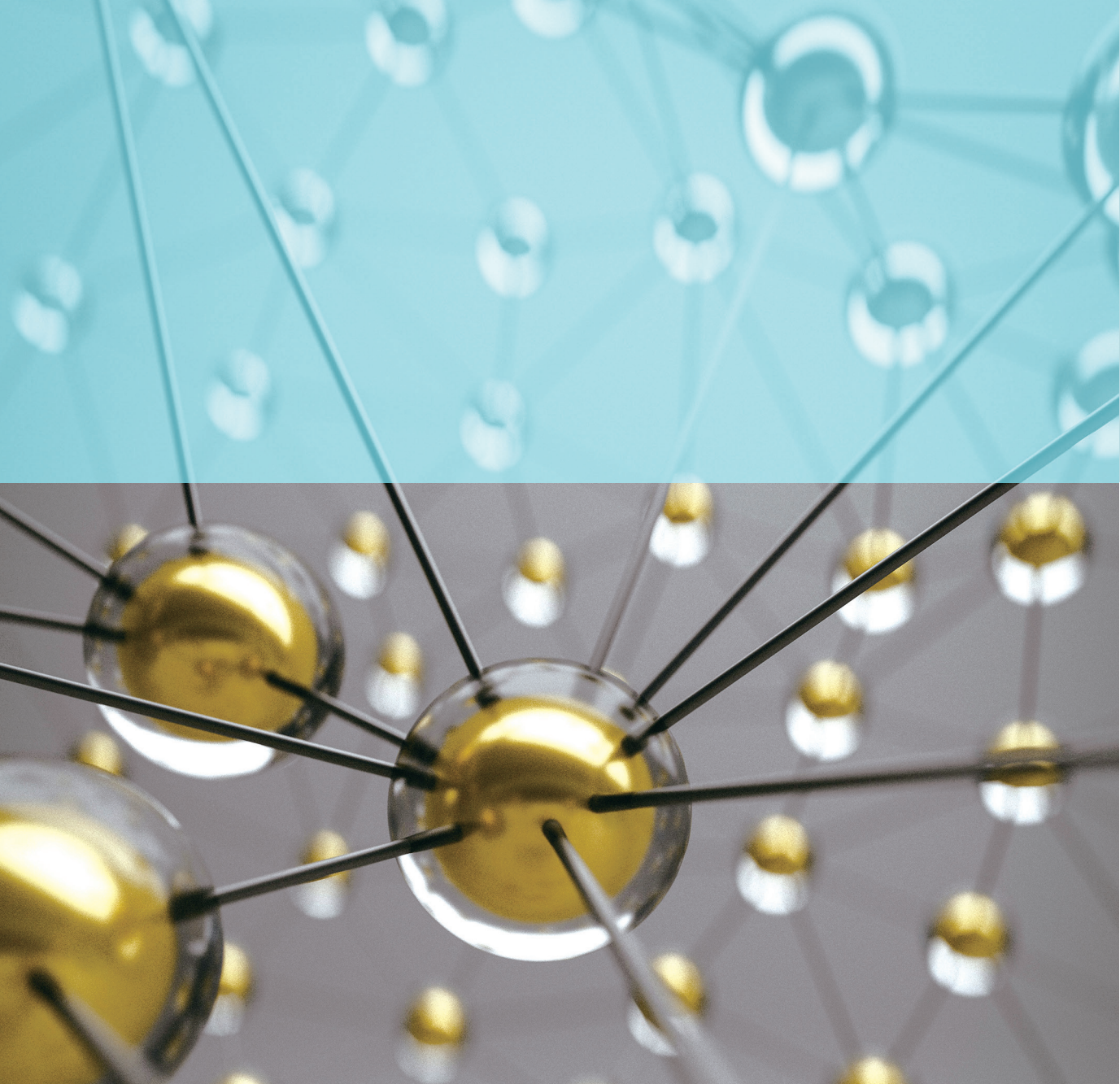
2025년 12월 기준

복합 악취도 감소 수준

100배

2025년 12월 기준

¹¹ 기존 건조 및 소각 방식 대비 하이브리드 HTC 공정 에너지 소요량 비교 분석



BREAKTHR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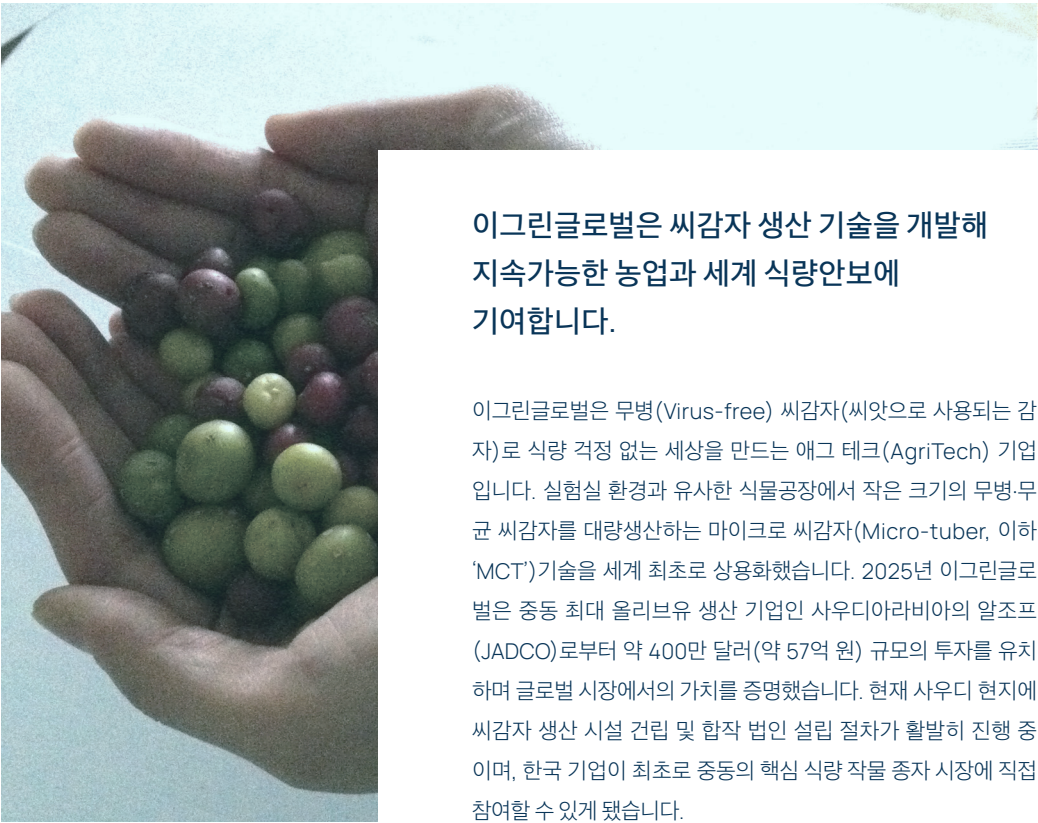
[]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이그린글로벌, [신기술 이전]으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인진, [에너지 상용화]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젠트로피, [배터리 표준화]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클라우드웍스, [AI 아카데미]로 변화의 흐름을 기회로 바꾸다



이그린글로벌은 씨감자 생산 기술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합니다.

이그린글로벌은 무병(Virus-free) 씨감자(씨앗으로 사용되는 감자)로 식량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애그 테크(AgriTech) 기업입니다. 실험실 환경과 유사한 식물공장에서 작은 크기의 무병·무균 씨감자를 대량생산하는 마이크로 씨감자(Micro-tuber, 이하 'MCT')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2025년 이그린글로벌은 중동 최대 올리브유 생산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조프(JADCO)로부터 약 400만 달러(약 5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현재 사우디 현지에서 씨감자 생산 시설 건립 및 합작 법인 설립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한국 기업이 최초로 중동의 핵심 식량 작물 종자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ZERO
HUNGER

SDG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업활동을 이행한다.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2.3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09년 8월	최초 투자 시점	2018년 11월
대표자	신기준	투자 펀드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I
홈페이지	https://www.eggtuber.com/ko	투자 테마	농식품
임직원 수	19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AgriTech
주소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3		

ABOUT INVESTMENT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실험실 기반 무병씨감자 대량생산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ed

감자는 세계 4대 식량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씨감자 생산 방식은 병충해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고 생산 기간이 최대 6년에 달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그린글로벌은 무균 식물공장에서 마이크로튜버(MCT)를 연중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기존 씨감자 공급 체계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생산 기간을 기존 5~6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 설립 및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의 병해 리스크를 낮추고 수확량과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예상됩니다. 향후 감자뿐만 아니라 고구마, 카사바 등 다양한 작물로 기술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투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Future Momentum

원천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기술 이전(JV) 모델 본격화: 이그린글로벌은 현재는 자체 개발한 MCT 기술 이전에 역량을 집중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무균 기반 대량 생산 기술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한 고품질 종자 공급을 가능케 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선도적인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판매를 넘어, 현지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모델로 전환하여 자본 효율성도 함께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생산·공급 기반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는 특히 식량 자급이 시급한 중동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생산 거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1개 씨감자 생산기술 특허를 보유한 이그린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농업 기업인 JADCO와 투자 및 합작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 공급처, 사업협력 의향 등 이그린글로벌과 함께 파트너십을 논의해온 기관수는 총 45곳(2025년 말 기준)에 이릅니다. 또한 세계 최대 감자 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기존 진출국에서의 장기 공급 계약과 시너지를 이루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내형 스마트농장 시장은 2024년 854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383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이 전망됩니다.

CHALLENGE

이그린글로벌이
집중한 문제

국가별 감자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품질 공인 인증
씨감자(Certified Seed)를
공급하는 비중

약 20%

감자는 세계 4대 식량자원 중 하나로, 글로벌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자의 생산성은 씨감자의 품질에 크게 좌우되며, 초기 씨감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병해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수확량의 최대 80%까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감자 재배 농가 중 바이러스와 병해충이 없는 고품질 공인 인증 씨감자(Certified Seed)를 공급받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종자 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¹² 게다가 씨감자는 수분 함량이 70~80%에 달해 부패에 취약하고 엄격한 검역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륙 간 교역량은 전체 생산량의 7%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¹³

씨감자 대륙간 교역량

전체 생산량의
약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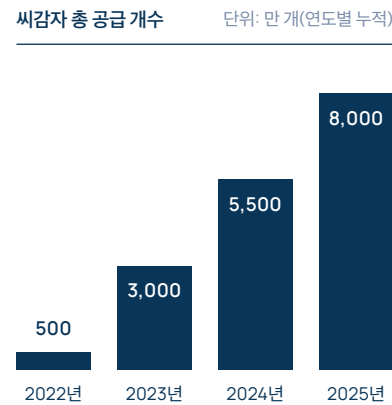
감자는 단위면적당 양분 요구량이 높아 화학비료 의존도가 큰 작물로, 일부 감자 재배 현장에서는 60% 이상의 농가가 질소·인산 비료를 과다 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⁴ 질소와 인산의 과잉 투입은 토양·수질 오염, 생물다양성 저하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 있어, 화학비료 감축은 감자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특히 유럽은 탄소중립 및 친환경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학물질 사용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은 증식 단계로 고품질 씨감자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SOLUTION POINTS

이그린글로벌의
차별 포인트

일년 내내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씨감자를
빠르게 대량 생산합니다.

이그린글로벌의 MCT기술은 씨감자를 온실이 아닌 식물공장의 배양액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0'에 가깝고, 생산에 필요한 땅의 면적을 99.4% 줄입니다. 기존 씨감자 생산 기술은 재배까지 90일 이상 걸리는 데 비해 이그린글로벌의 MCT 기술을 적용하면 공장에서 일 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고 생산량이 495배 높아 집니다. 이에 따라 시장 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대 6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감자가 땅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표피 강화 기술과 바이러스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는 품질 관리 기술을 통해 감자의 발아 및 출현율을 98% 보장하고, 손실률을 95% 감소시킵니다.



IMPACT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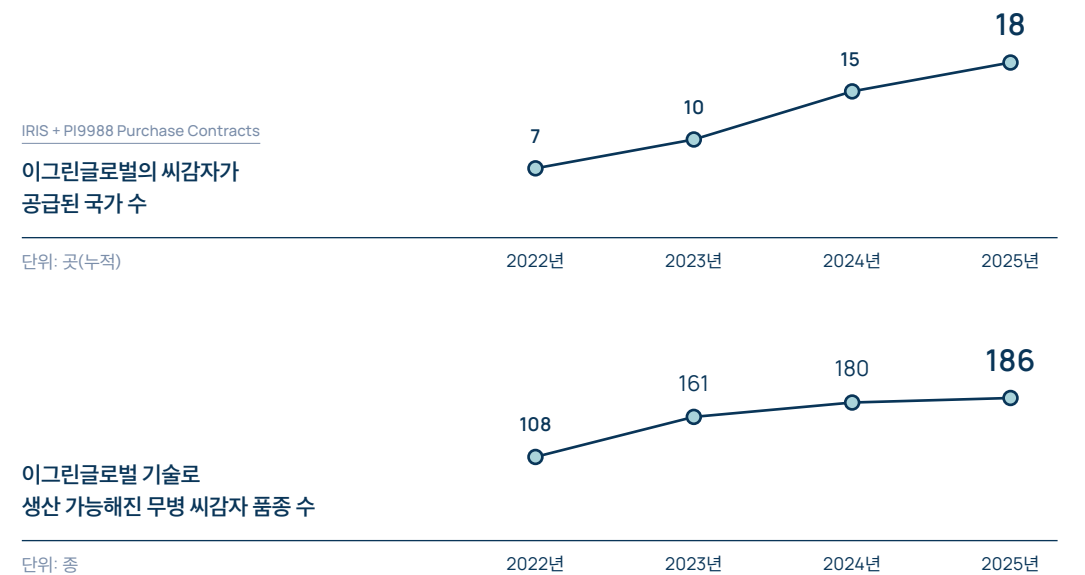
이그린글로벌이
만든 변화

씨감자 생산 기술로 만드는
식량 위기 걱정 없는 세상

이그린글로벌은 종자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문제인 먹거리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씨감자 생산 체계가 미비한 지역에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별 식량 주권 확립과 자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전 세계 씨감자의 80%가 병해충에 노출되어 생산성이 70% 이상 급감하는 심각한 문제를 고품질 무병 종자의 신속한 보급으로 해결하여, 농가 수확량 극대화와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그린글로벌은 식물공장 기반의 마이크로튜버(MCT) 기술을 통해 전통 농업의 환경적 한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하며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클린룸 환경의 생산 방식은 진딧물이나 곰팡이 등 외부 병원균을 100% 차단하여 재배 과정에서 농약 및 화학 물질 사용을 제로(0)에 가깝게 줄임으로써 토양과 수질 오염을 방지합니다. 또한 기존 30~50g의 씨감자를 1g 내외로 경량화해 물류 부피를 1/5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저온 유지가 필수적인 선박 대신 일반 항공 우편 배송을 가능하게 하여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합니다. 2025년 말까지 이그린글로벌의 씨감자를 공급한 국가수는 총 18개국에 이르며, 이그린글로벌 기술로 생산 가능해진 무병 씨감자 품종 수는 총 186종에 이릅니다.

이그린글로벌과의 협력을 통해 씨감자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어지는 통합 감자 밸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합작 파트너사 JADCO 관계자



¹² <https://www.credenceresearch.com/report/seed-potatoes-market>

¹³ <https://oec.world/en/profile/hs/potatoes>

¹⁴ <https://ici-growingsolutions.com/agriculture/crops/potato/>



인진은 파력 발전을 통해 전력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입니다

인진은 연안형 파력발전 기술인 INWave를 중심으로 도서 지역에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도서 지역과 해안가에 최적화된 파력발전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진은 영국 혁신청(Innovate UK)의 지원 프로그램인 '에너지 카탈리스트 라운드 (Energy Catalyst Round)' 9와 10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제적인 기술 신뢰도를 입증했고 72만 파운드(약 12억원)의 지원금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전력회사 PT PLN (Perusahaan Listrik Negara)의 자회사인 PT PLN Indonesia Power와 파트너십을 맺고, 숨바와 지역에 125kW급 파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SDG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내륙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SDG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1년 7월	최초 투자 시점	2016년 9월
대표자	성용준	투자 펀드	CCVC 신디케이트리드펀드
홈페이지	https://www.ingine.co.kr/	투자 테마	에너지
임직원 수	7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제조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7길 15		

ABOUT INVESTMENT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전 세계 유일의 연안형 파력 발전 상용 기술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Why We Invested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화석연료 기반의 디젤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자립섬'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는 가운데, 인진은 세계 유일의 온쇼어 파력발전 솔루션 'INWave'으로 도서 지역의 전력 자립을 현실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은 높은 연료 운송비와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발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했으며, 인진의 'INWave' 솔루션은 기존 파력발전 방식 대비 높은 경제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도의 6가지 방향 움직임을 모두 에너지로 전환하는 '다자유도 에너지 회수 기술'을 통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진은 2015년 제주 북촌 전력 계통 연계 성공과 추자도 실증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전력 취약국 뿐 아니라 영국·프랑스·북미 등 재생에너지 선진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주요 투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Future Momentum

현지 사업 리스크 해소와 상업화 기반 강화: 인진은 정치적·행정적 불확실성이 컸던 베트남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로 전략적 사업지를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의 자회사인 PT PLN Indonesia Power를 사업 주체이자 핵심 파트너로 확보해, 현지 인허가 및 사업 추진 리스크를 크게 낮추고 상업 프로젝트로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 내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추진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력 취약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10~20MW 규모의 상업 프로젝트 진입 준비: 인진은 현재 125kW 상용 실증 프로젝트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매출 실현 단계(Revenue stage)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T PLN Indonesia Power와 약 1,200억 원 규모의 20MW급 상업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설비 판매 등을 통해 약 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인진이
집중한 문제

도서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전력 보급률은 92%에 도달했으나 여전히 6.7억 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섬), 오지, 개발도상국의 농촌 등에서 안정적인 전력망(Grid)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 전력원으로 디젤을 사용합니다. 디젤 발전의 평균 원가는 0.2~0.5 USD/kWh로 일반 화력발전보다 2~5배 높으며, 섬 지역은 수송 비용으로 인해 육지보다 더 높은 전기료를 부담합니다. 특히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력 공급 비용이 상승해 일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전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 발전은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독성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의 약 20배, 풍력의 70배에 달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1억 명은 여전히 오염을 유발하는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진의 주요 타깃 지역인 소규모 섬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의 청정 조리 연료-기술 접근률은 60%에 그쳐, 글로벌 평균인 74%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러한 경제적·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디젤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청정 에너지 기술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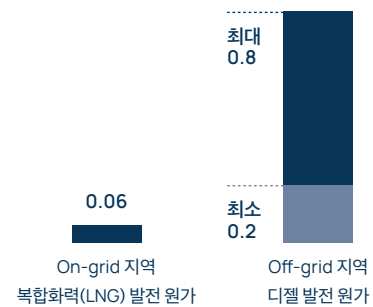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 수

6.7억명

World Bank&IEA (2025)

지역별 발전원가 비교¹⁶

단위: USD/kWh



¹⁶ A.Gerlach et al. (2009); D.Chattopadhyay(2013); Cost-optimal electricity systems with increasing renewable energy penetration for islands across the globe(Dean & Kornelis, 2018); IRENA (2021)

SOLUTION POINTS

인진의
차별 포인트

파력 발전 기술로 도서 지역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인진은 먼 바다(Offshore) 대신 가까운 연안(Onshore and Nearshore)에 중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파력발전 기술 'IN Wave'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INWave는 해저 케이블 없이 연안 수심 3m부터 설치가 가능하고, 주요 시설을 육지에 설치할 수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기존 파력 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 소규모 도서지역에도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진은 2013년부터 베트남, 나이지리아, 캐나다 등 9개 국가의 다양한 해역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총 100건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숨바와 지역에서 추진 중인 125kW급 파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2025년 토지 임대 계약과 해역 사용 승인을 완료했고 2026년 4월 환경영향평가(UKL-UPL) 최종 승인까지 획득하며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영국 혁신청(Innovate UK)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는 PT PLN Indonesia Power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

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진 영국 법인(INGINE Wave Energy Systems Ltd.)은 영국 사절단의 일원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에너지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글로벌 에너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누적 특허 등록 건수

100건

2025년 12월 기준



상용화 준비 프로젝트 수주 건수

5건

2025년 12월 기준

IMPACT STORY

인진이
만든 변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접근하는 세상

인진은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누적 설치 용량 100M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의 약 25만 8,792명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청정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력발전의 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1/100 수준(탄소배출계수 약 8gCO₂eq/kWh)으로, 디젤 발전을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우 큼니다. 인진이 2030년까지 100MW 설치 목표를 달성할 경우 총 22만 2,561 tCO₂eq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인진과 인진의 영국법인이 추진하는 ECR(Energy Catalyst Round) 10 프로젝트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숨바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1,8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마을은 100km 이상 떨어진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열대우림을 통과하는 배전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기에, 주 3회 이상 정전이 발생합니다. 이 프로젝트로 건립되는 인진의 125kW 규모의 파력발전소는 이 마을에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단순히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매연과 비싼 요금에 노출되었던 도서 지역 주민에게 건강권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IRIS+ PI0915 Energy Storage Capacity

섬/해안 지역(도서 지역) 누적 설치 용량

100MW

2030년 목표



IRIS+ PI5376 Greenhouse Gas Reductions due to Products Sold

디젤 발전 대체에 따른 연간 탄소배출 저감량

222,561 tCO₂eq/year

2030년 목표



인도네시아 지역 프로젝트 혜택 인구수(누적)

258,792명

2030년 목표



젠트로피는 전기 이륜차와 배터리 공유 시스템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듭니다.

젠트로피는 배터리 교환식 전동 모빌리티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을 통합 제공하며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동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구축된 교환형 스테이션 인프라와 다양한 제조사의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이륜차 이용 편의성과 확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젠트로피는 2025년 업계 최초로 정부 공인 KS 표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사업자로 선정되며 국내 전기이륜차 인프라의 표준화와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동화를 촉진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DG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외 여타 폐기물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축소한다

SDG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안전을 개선한다



SDG 7.3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8년 1월	최초 투자 시점	2019년 1월
대표자	이재상, 주승돈	투자 펀드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
홈페이지	https://zentropy.co.kr/ko	투자 테마	에너지
임직원 수	47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제조
주소	(본사) 서울시 서초구 주흥 3길 9(반포동) / (공장)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2, 1층		

ABOUT INVESTMENT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동화를 통해 도심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 문제 해결합니다

Why We Invested

젠트로피는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는 동시에, 전기 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장벽인 '긴 충전 시간' 문제를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인프라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판매를 넘어, 하드웨어(이륜차)와 플랫폼(BSS-렌탈 서비스)을 결합한 이동 서비스(MaaS) 모델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수익 구조의 안정성도 높입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할수록 전기 이륜차 수가 늘고, 이는 곧 도심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감소로 직결되는 임팩트 창출 효과도 높게 평가됐습니다. 국내 전기이륜차 관련 시장은 최대 2조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 세계적인 전동화 트렌드와 맞물려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Future Momentum

국가 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젠트로피는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KS 배터리 표준 제정 이후, 환경부가 추진한 총 500대 규모의 표준화 스테이션 지원 사업에서 총 200대가 선정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표준 스테이션 설치 사업에서도 2년 연속 사업자로 선정되며, 표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SS) 인프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 지역 확장: 젠트로피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한편, 청주 등 주요 지방 도시로 배터리 교환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에서 축적한 운영 데이터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륜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전기이륜차 시장은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 전기이륜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내연기관 대비 낮은 유지비 등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35년에는 약 1,543억 달러, 한화 약 211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HALLENGE

젠트로피가 집중한 문제

내연기관 이륜차 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인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42.7명으로 OECD 평균인 28.9명보다 1.5배 많고, 사망자가 적은 뉴질랜드(6.3명)보다 6배 많습니다.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연기관 이륜차는 소형 승용차 대비 일산화탄소(CO)는 23배,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무려 279배나 더 많이 배출함

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륜차 등록 대수가 2025년 기준 약 228만 대까지 늘어났고, 도심 내 대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졌습니다.

내연 이륜차가 늘면서 생활 소음, 안전 사고 등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2025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4년 대비 7.6% 감소한 14,129건이었으며, 사망자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2021년~ 2025년) 연평균 22,276명의 이륜차 사고 사상자가 보고되며, 하루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OLUTION POINTS

젠트로피의 차별 포인트

표준화된 배터리 공유 인프라와 렌탈 서비스로 전기이륜차 대중화를 가속화합니다.

젠트로피는 기존의 긴 충전 시간을 요구하는 플러그인 방식 대신, 1분 내외로 즉각적인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혁신적인 교환 시스템을 제품에 도입했습니다. 2022년 8월 출시된 대표 모델 '젠트로피 제트'는 배달 라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125cc급 내연기관 모델을 넘어서는 고출력 모터를 탑재해 최고 시속 10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ABS와 TCS 등 고급 안전 기능을 기본 적용해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중앙 관제 시스템이 이륜차의 가속도, 기울기, 배터리 충전전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라이더의 안전과 기기 효율을 시 기반으로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젠탈서비스(Zental Service)'는 전기이륜차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체 이용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 라이더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1~3개월의 단기 계약부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까지 유연한 렌탈 기간을 제공합니다. 렌탈 이용자의 약 80%가 계약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거나 직접 구매로 전환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배달 대형업체 등 B2B 협력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젠틀로피 제트는 2025년 말 기준 누적 1천대가 판매되었고, 렌탈을 통한 운용 대수는 310대에 이릅니다.



IMPACT STORY

젠트로피가 만든 변화

모두가 안전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젠트로피는 전기이륜차 기반의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통해 내연기관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배터리 교환 시스템(BSS)을 구축했고, 전문 배달 시장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젠탈서비스(Zental Service)'를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약 1,000대의 젠틀로피 제트가 운행 중이며, 누적 총 주행거리는 1,436만km에 달합니다. 이는 지구를 약 358바퀴 도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젠틀로피의 전기 이륜차 보급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약 56.25톤 줄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1.4톤 저감했습니다.

또한 젠틀로피는 위험한 주행 환경과 고비용 부담에 노출된 배달 라이더들에게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춘 맞춤형 '젠탈서비스(Zental Service)'를 통해 내연기관 대비 월 평균 약 50만 원의 유지비를 절감함으로써 라이더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기기의 가속도, 기울기 및 배터리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사용자 모바일 어플에 배터리의 노후도와 수명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건강 정보(SoH: State of Health)를 추가했습니다.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전력 차단이나 출력 급감으로 인한 도로 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압이나 온도의 미세한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배터리 화재 및 폭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니, 내 자신이 좀 더 보호받는 기분이 들어요.

— 젠틀로피 제트 사용자





크라우드웍스는 자체 솔루션과 체계적인 교육으로 AI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크라우드웍스는 고품질 데이터와 자체 솔루션을 기반으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로봇틱스 및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피지컬 AI(Physical AI)’를 차세대 동력으로 삼아 실제 환경을 고려한 정밀한 행동 데이터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 문서 최적화 도구인 ‘알피 놀리지 컴파일러(Alpy Knowledge Compiler)’와 올인원 데이터 솔루션 ‘워크스테이지(Workstage)’, 차세대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등 전주기 관리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가트너 보고서에 4년 연속 등재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금융권, IT 기업, 공공기관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SDG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 및 직업 역량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대폭 늘린다



SDG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또는 경제적 지위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기업 정보		투자 정보	
설립연월	2017년 4월	최초 투자 시점	2019년 12월
대표자	김광일	투자 펀드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I
홈페이지	https://www.crowdworks.ai/ https://aiedu.crowdworks.ai/	투자 테마	교육
임직원 수	184명 (2025년 12월 기준)	산업 분류	ICT/플랫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5F		

ABOUT INVESTMENT

주목할 임팩트 투자 포인트

AI 학습 데이터 병목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Why We Invested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가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특히 데이터 전처리는 AI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자체 검수 및 보상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데이터 신뢰도를 99%까지 높이고 작업 시간을 50% 단축하는 등 Human-in-the-Loop 기반의 사람과 AI 간 협업 구조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로 환경과 투명한 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세 차례의 M&A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의 사업 확장 역량 역시 주요 투자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Future Momentum

데이터 품질 중심 AI 패러다임 선점: AI 산업의 경쟁 축이 ‘모델 크기’에서 ‘데이터의 질’로 이동하면서, 크라우드웍스의 전주기 엔지니어링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Physical AI)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데이터 솔루션으로, AI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게 되는 데이터 전처리 난제를 해결합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기업 Scale AI가 약 290억 달러(약 42조원)로 평가받을 만큼 데이터 자산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질 전망입니다.

전 주기를 통합하는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검증, 평가, 운영까지 전 과정을 엔드 투 엔드(End-to-End)로 관리하여 AI 도입의 병목 문제를 해결합니다. 2035년까지 약 1조달러(약 1,47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피지컬AI 시장은 크라우드웍스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CHALLENGE

크라우드웍스가 집중한 문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직무 대체와 고용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도입은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유례없이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AI역량을 갖춘 청년에게는 기회가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청년, 중장년, 여성 등 일부 계층은 더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등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한 청년 일자리 감소 수

208,000개

한국은행 (2025)

정형화된 실무 업무를 시가 빠르게 자동화함에 따라, 과거 청년층이 일터에 진입해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던 기초 직무 자체가 시장에서 대거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라진 청년층 일자리 21만 1천개 중 총 20만 8천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으며, 2026년 1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4%로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AI 분야 여성인력 비중은 전체의 약 15%에 불과하며, AI 분야의 여성 창업자 비율은 7.5%에 그쳤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돌봄으로 인한 공백기 동안 벌어진 AI 역량 격차가 노동시장 복귀를 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부족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SW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경력단절 상황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분야의 실무 지식을 쌓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경력단절 상황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실무지식을 쌓기 어렵다



SOLUTION POINTS

클라우드웍스의
차별 포인트

실무 중심의 AI 전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웍스는 국내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기업 최초로 2023년 8월 31일 코스닥(KOSDAQ)에 상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단순 데이터 라벨링을 넘어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구축과 AI 전환(AX)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웍스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라벨러부터 프로젝트 매니저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2026년 6월 기준 약 67만명의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라벨러 풀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별도 자회사로 클라우드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교육 사업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클라우드 아카데미는 기업 임직원 대상의 맞춤형 AI 역량 강화 교육(B2B)과 대규모 언어모델(LLM)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실무 교육을 제공 확장합니다. 특히 자체 보유한 AI 교육 솔루션 '알피(Alpy)'를 통해 빠른 AI 실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개발자도 각종 문서를 직접 인공지능 맞춤형 데이터로 변환(지식 자산화)하고, 노코드 기반의 에이전트 구축부터 성능 평가(Evaluation)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KOSDAQ
코스닥 상장법인

2023년 8월
코스닥 상장 (IPO)

CA crowd
academy

2024년 1월
클라우드 아카데미 자회사 설립

IMPACT STORY

클라우드웍스가
만든 변화

모두가 AI를 충분히 활용하고
사람과 시가 함께 일하는 세상

클라우드웍스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기업으로서 전문 교육 회사를 만들고 AI 전환기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자회사인 클라우드 아카데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아카데미는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이용권 등 정부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경제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개발자와 취약계층도 AI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2024년 설립 이후 평생교육/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한 AI 활용 스킬 교육 수료자 수는 총 2,838명에 이릅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재취업 아카데미 등 협약기관을 통해 수료한 인원수도 500명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및 조선업 등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 수요에 맞춰 교육 과정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AIDE·AIEA 자격증과 디지털 배지 체계를 도입하여 급변하는 직무 환경 속에서도 실전 경쟁력을 갖추고 노동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 계획입니다.

경력단절자로 앞으로의 커리어 개발에 이번 교육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 기초 과정 수강생

IRIS+ PI8836 Vocational/Technical Training

각 연도별 지자체 및 평생교육/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한 AI 활용 스킬 교육 수료자 수

단위: 명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4월
수료자 수	549	537	1752

IRIS+ PI8836 Vocational/Technical Training

각 연도별 협약기관을 통해 교육받은 수료자 수

단위: 명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4월
수료자 수	162	166	174



CCVC 2026 임팩트 리포트

서울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현빌딩 2층

부산 지사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39 상상마당 부산 6층

www.ccvc.co.kr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처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기획·제작 트리플라잇㈜

